

8월 Market Index			
↓ 코스피	6954.52	↓ 코스닥	811.88
	(-40.87)		(-10.31)
↑ 금리 (국고채 3년)	3.901	↑ 환율 (원-달러)	1344.90
	(+0.001)		(+4.40)

치솟는 임대료·줄어든 매물… 세입자 움짱달씩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증가
지난달 7089건… 전세 51.7% 차지
강남 등 수억대 보증금 인상 사례도

가을 이사철이지만 계약변료를 앞둔
서울 아파트 임차인들의 한숨 소리가 커
지고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커
진 데다 다른 집을 구할 경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 추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던 청년들도 예산에 맞
는 매물을 찾지 못해 살던 집에 머무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
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세입자
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계약을 갱신
하면 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이사를 선택하면 더 높은
주거비와 매물 부족이란 이중고를 감수
해야 한다.

◆ ‘이동’보다 ‘잔류’ 선택

8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을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1만3709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7089건으로 51.7%를
 차지했다. 지난 7월(46.5%)보다 5.2%포인트(p)
 상승하면서 갱신계약 비중이 절
반을 넘어섰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
사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



전통시장·대형마트, 차례상 비용 소폭 상승

8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6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
물가정보가 추석을 약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
과 올해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전통시장은 3500원(1.2%), 대형마트는 6350
원(1.6%) 각각 오른 수준이다.

/뉴시스

한 비중은 7월 43.6%에서 지난달 39.4%로
 낮아졌다. 단순히 법적 권리를 행사해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해 재
계약하거나 기존 조건을 조정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이동’보다
는 ‘잔류’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셋값 상승과 물건 품
귀로 현재 거주하는 집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
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행사하면 임
대료 인상은 원천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된다.

살던 집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보증
금이 수억원 오른 사례도 있다. 강남구 청
담동 ‘청담자이’ 전용 82.952㎡는 지난달
31일 보증금이 12억원에서 17억5000만원
으로 오른 전세 갱신계약이 신고됐다. 성
북구 길음동 ‘배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59.99㎡도 같은 달 19일 보증금이 5억
67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 보증금·월세 ‘경충’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매달 내는 월세
가 두 배 가까이 된 계약도 있었다. 송파
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9㎡는
지난달 13일 보증금 5억원을 유지하면서

월세를 166만원에서 325만원으로 올려
갱신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159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재계약 부담을 피해 다른 집을 찾는 것
도 쉽지 않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에서 광화
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원서영씨
(27)는 다음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
난 계약에 이어 이번에도 월세 5% 인상
에 합의했다.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현
재 수준의 월세로 직장인과 가
까운 집을 찾지 못했다.

〈2면에서 계속〉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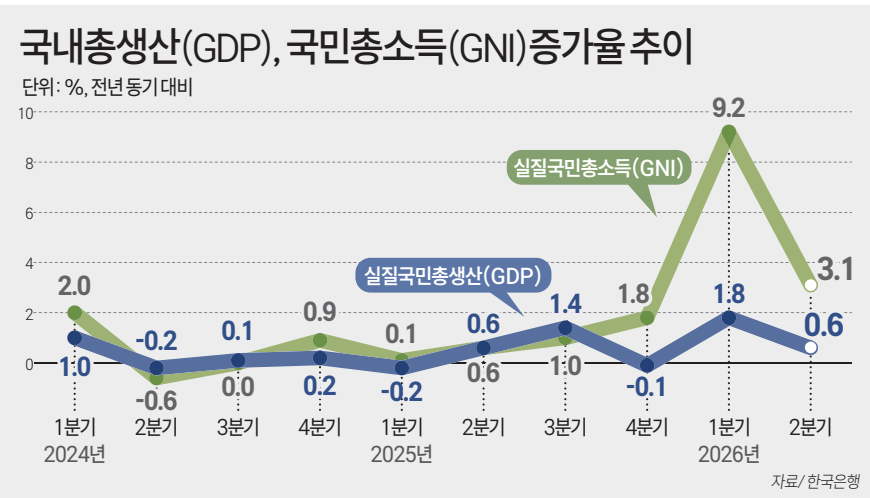
2분기 한국경제 0.6%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눈앞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소비회복 영향
전분기比 실질 국민총소득 3.1% 증가
한은 “3.3% 성장률 전망치 달성 가능”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인당 국
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소득이 급
증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4만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8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
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
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전년 동
기보다 3.7% 성장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다.

김하용 한은 경제통계2국 국민소득부
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고 명목 국민총소득(GN
I) 증가세와 환율 안정세가 유지되는 것
을 전제로 “올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
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963달러
였다. 올해 4만달러를 넘으면 2014년 3
만달러에 진입한 지 12년 만에 앞자리
가 바뀐다. 1인당 GNI는 가계·기업·정
부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연간 명목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달러로 환
산할 때 연평균 환율을 적용해 같은 원

화 소득이라도 환율이 낮아지면 금액
이 커진다.

4만달러 진입 기대를 높인 것은 명목
소득 증가다. 2분기 명목 GNI는 전분기
보다 8.8%, 전년 동기보다 26.4% 늘었
다.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보다
21.8%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가
격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

향이다.

교역조건 개선은 실질 구매력도 끌어
올렸다. 실질 GNI는 전분기보다 3.1%
증가해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수출가
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실
질무역이익이 38조7000억원에서 58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수출과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각각
1.3%, 0.4% 증가했다. 김 부장은 하반
기 두 분기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평
균 0.2~0.3%를 기록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3%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한은은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장
은 성과급·배당 등을 통한 소득 이전을
설명하며 “앞으로 가계 소득 증가세가 지
속되면서 시차를 두고 민간
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美 AI發 반도체주 강세 코스피 장중 ‘7000’ 터치

코스피가 오픈AI ‘아스트라’발 훈풍에
장 중 7000선을 터치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는 전 거래일보다 0.58% 하락한 6954.52
에 마감했다. 차익 매물의 무게에 하락 반
전했지만, 장 중 7171.52까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19% 내린
26만9500원, SK하이닉스는 0.56% 상승
한 179만3000원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AI
발 반도체주 강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
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스트라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수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AGI(범용 인공지능) 도달 가능성이
부각됐다”며 “높은 성능과 활용성이 토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도 재차 강화했
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강했던 미국 고용 지표도 국
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모습
이다.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은 16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5만
5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고용 증가
상당 부분이 숙박·음식료와 지방정부 교
육 등 계절성이 큰 업종에서 발생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0.
3%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
션 우려를 크게 자극하지 않았다는 분석
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최
근 코스피의 급락은 시장의 편파멘털(기
조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향후 12개월 목표치로 1만
2000을 유지했다.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전략가는 한국
기업들이 골드만삭스의 이익 전망을 달
성한다면 코스피 1만2000이라는 목표가
“겉보기만큼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증시의 최대 변
수로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꼽고 있다.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한층
완화되면서 연준과 금융시장의 관심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
승하고 있어 전월 대비 물가상승 폭은 확
대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이 실시
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들은 8월 CPI가 전월 대비 0.4% 오를 것
으로 내다봤다.

미국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도 국내 반
도체주 향방을 가를 변수다. 특히 한국시
간 11일 새벽 예정된 오라클 실적에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올림픽공원 찾은 장동혁 “체육회,李 부재 시에
만 체육관 진입 시도…유감” /사진 뉴시스
- ▲ 국토위,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16일 청문
회 개최 의결

- ▲ 興 ‘정점식 교섭단체 연설’에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
- ▲ 조국혁신당 ‘정점식 교섭단체 연설’에 “수구적
이념 공세”

- ▲ 검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이억원
수사 착수
- ▲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1일
소환 통보

K-뷰티, 피부 속까지 관리… 항노화 기술 줄줄이 성공

**LG생건 고기능성 신제품 선배
아모레퍼시픽 역노화 기술 집중
애경산업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

국내 주요 뷰티 기업들이 피부 겉과 속을 모두 관리하는 데 이어 피부 건강에 중점을 둔 ‘스킨 통제비티(피부 장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 뷰티·건강 기업’이라는 새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7일 ‘화장품의 날’을 맞아 그간 축적해 온 연구개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화장품의 날 기념식에서는 LG생활건강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화장품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유공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은 피부 장수 핵심 성분 ‘NADPower24’ 등을 개발해 왔다. 세포 노화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조효소로 알려진 NAD+의 작용 메커



LG생활건강 연구원들이 화장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니즘을 규명하고, 피부 투과력 등을 개선했다.

나이가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한 효능에도 중점을 뒀다. 손상된 진피 섬유아세포에 해당 성분을 투여할 경우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등 세포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소기관들이 30분 만에 복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LG생활건강은 고기능성 신제품을 지속 선보이이고

있다.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 후’의 경우, 최근 항노화 미백 제품군 ‘3세대 천기단’, ‘비첩 NAD 파워 앰플’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천기단은 아시아인 6만 명의 유전자 연구 성과를 집약한 것이 특징으로 한국, 중국 등에서 동시 출시되기도 했다.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LG생활건강은 1947년 럭키크림 출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화장품 산업 생태계

를 조성하고 글로벌화를 선도해온 K뷰티 대표 기업”이라며 “최신 R&D 트렌드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에 매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계속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생활건강은 매년 16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80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6%다. 앞서 2024년에는 1604억원, 2025년에는 157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썼다. 연구개발비율은 2024년 3.4%, 2025년 3.7% 등으로 유지했다.

피부 과학 경쟁은 뷰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약 672억원이다. 매출액 대비 2.91%를 투입했다. 같은 기간, 애경산업 역시 매출액의 3.28%인 115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쓰며 전년 2.62% 대비 투자 비중을 늘렸다.

아모레퍼시픽은 ‘홀리스틱 통제비티 솔루션’으로 피부를 넘어 전 생애 건강과 아

름다움을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역노화 연구개발은 피부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다룬다. 세포 성장과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PDK1을 억제하는 기전을 규명해 주름, 탄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에 중점을 둔다.

애경산업은 오는 2028년까지 화장품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글로벌 산학 협력을 통해 기초 연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애경산업은 최근 동성제약, 중국 푸단대학교 장강연구원과 ‘피부과학·뷰티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종별 피부·두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AI 기반 분석 플랫폼, 신규 원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신생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제품력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며 “실제 임상 결과나 독자적 기술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지지부진’

“사업성 떨어져” vs “골목상권 약화”… 입장차 여전

(대형마트업계)

(소상공인·자영업계)

정부 중재안에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 전문가들 “기존 규제 실효성 따져봐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이해관계자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이미 이커머스가 선점한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면서 상생자금과 판매 제한까지 떠안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단체 내부에서도 전면 반대와 조건부 수용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한 새벽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부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새벽배송 허용 여부는 물론 상생협력금 규모와 판매 품목 제한 등 세부 조건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골목상권이 가진 근거리·즉시 구매 수요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잠식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인데,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꼼수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며 “대형마트 의무



지난 3월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 현장.

/뉴스시스

휴업일 규제를 풀고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의 마지막 경쟁력인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장도 “우리 동네마트와 슈퍼, 정육점, 반찬가게 등은 서민물가를 지켜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내놓은 상생안 역시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10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금 조성 1만원 이하 신선식품 소량 판매 제한 등을 제시한 상태다.

소상공인 진영에서도 대응 방향을 놓고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단체가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소비자가 새벽배송을 포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국비 지원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놨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되는 셈이다.

대형마트 업계 역시 정부의 중재안과

소상공인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대형마트에 대규모 상생비용과 판매 제한까지 부과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벽배송에 나서려면 물류 시스템과 배송망 등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만큼 상생자금 조성 10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금 조성 1만원 이하 신선식품 소량 판매 제한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붙는다면 새벽배송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허용보다 월 2회의 무휴업일 규제 완화가 경영 측면에서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말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 특성상 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등 기존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매출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경쟁 구도만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층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층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이미 규제 없이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업체와 대형마트 간 경쟁 구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심리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새벽배송 소비자와 실제 골목상권의 소비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소비자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오히려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7.19% 유지… “민생안정 의견 모아”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 및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관측 등을 들었다.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700억 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000억 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은 3조8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영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지원이 증액된 점,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



이영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명했다.

또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여져 최종 합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09%로 동결된 뒤 2026년도분

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 이 차관은 국고 지원을 미준수 지적에 대해 “한꺼번에 국고 지원을 증액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정부, 전세 공급 늘릴 정책적 보완 필요”

» 1면 ‘치솟는 임대료…’서 계속

김모씨(25)도 최근 이사를 고민하다 대학 시절부터 살던 집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김씨는 “전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새로운 집을 알아볼 시간과 여유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대출 제약으로 새로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전세 매물도 줄어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

다”며 “청년의 경우 목돈을 주거비로 묶어 두기보다 주식 등 다른 투자처에 활용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전세 공급을 늘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중심의 정책과 실거주 의무, 임대차 3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임대인의 시장 진입과 전세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삼성, D램 1위 굳히고 HBM 추격… 하반기 HBM4 승부

D램 점유율 39%로 삼성 선두 유지
SK하이닉스와 격차 14.5%p로 확대
HBM 점유율 21%서 33%로 상승
생산능력·장기공급계약 향후 승부처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격차를 벌리는 동시에 그동안 뒤처졌던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격차를 절반 이하로 좁혔다. 특히 하반기 HBM4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사의 메모리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39.4%로 선두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24.9%로 뒤를 이었다. 삼성은 전분기보다 0.9%포인트(p) 오른 반면 SK하이닉스는 3.9%p 떨어지면서 양사의 차이는 9.7%p에서 14.5%p로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은 609억8000만 달러(약 84조원)로 전분기보다 63.4%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385억9000만달러(약 53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증가폭은 37.9%로 삼성보다 작았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주요 D램 3사 가운데 비트 출하량을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고 HBM4 조기 양산과 출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이미지.

D램에서 우위를 확대한 삼성전자는 HBM에서도 SK하이닉스와 격차를 빠르게 줄였다. 2분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50%로 선두를 지켰지만 삼성전자는 한 분기 만에 21%에서 33%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양사의 점유율 차이도 37%p에서 17%p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에는 HBM 가격도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아 HBM3E 가격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

여기에 장기공급계약(LTA)을 경쟁사보다 일찍 체결한 탓에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매출에 반영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출하를 늘리며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1년 만에 33%까지 올라섰다. 반면 SK하이닉스는 64%에서 50%로 낮아졌고 마이크론도 21%에서 18%로 소폭 하락했다.

HBM 시장의 향후 점유율 변화는 HB

M4 출하에 달려 있다. 현재 HBM 매출 대부분은 HBM3E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HBM4 물량이 늘면서 세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의 HBM4 출하 증가가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6세대 10나노급(1c) D램과 자체 4나노 로직 공정으로 생산한 베이스다이를 적용한 HBM4의 양산과 상용 출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HBM4 공급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도 늘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4나노 공정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을 HBM4 베이스다이에 투입해 평택 파운드리 라인을 사실상 풀가동하고 있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HBM 매출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2분기 양산 출하를 시작한 HBM4의 생산량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린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는 상반기 고객사에 샘플 공급을 마치는 등 후속 제품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품 공급 확대와 함께 고객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주요 전략 고객을 포함한 약 10곳과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으며 추가 고객사와도 다년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HBM4를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닐 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리서치 부사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충분한 생산능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와 장기공급계약(LTA)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조정 끝낸 코스피… “추세적 회복 사이클 본격 진입”

기업이익 전망 높아지며 펀더멘털 강화
가격 부담 크지 않아 추가 상승 가능성
外人 수급 회복하며 시장 온기 확산
美 장기금리 상승과 유가 강세 부담

코스피가 8일 장중 7000선을 터치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제약했던 반도체 업종의 실적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이익 체력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번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추세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 회복 사이클”… 추세적 상승 기대

전문가들은 코스피 반등의 핵심 동력으

로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을 꼽는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오픈AI는 보안등급 ‘위험’(Critical) 단계로 평가된 새 AI 모델 ‘아스트라’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수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직접적인 코스피 상승 재료는 오픈AI 아스트라 공개에 따른 AI 수요 기대 회복이었다”면서 “코스닥과 중·소형주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금리 부담이 전반적으로 해소됐기보다 반도체 실적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시장 전반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순히 특정 대형주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상승의 온

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위기 및 폭락 국면이 종료되고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9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6300~7600포인트로 제시했다.

하나증권도 기업이익 전망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필요한 성장통을 충분히 거치며 추세를 복원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금리를 비롯한 매크로 부담도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7000선 회복을 추세적 반등으로 본다”며 최근 반도체 조정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

니라 수급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의 2027년 가이던스나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주 추이를 볼 때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었고, 주가가 뒤늦게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판단이다.

이 센터장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AI 수요와 고대역폭메모리(HBM)·D램(DRAM)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금리·인플레이션 변수… 외국인 수급 흐름도 중요

7000선 안착을 가를 변수로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환경이 지목된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고개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연준이 9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박 센터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고,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유가 강세가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다만 “매크로 변수와 무관하게 AI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AI 투자의 유효성이 확인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 AI 투자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산하은 기자 god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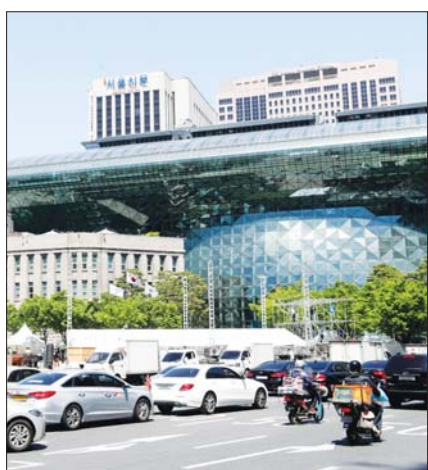
metro

“장기전세 7년 살고 내 집으로”… 퇴거 10가구 중 7가구 자가

평균거주 7년6개월, 20년 절반 못 미쳐
조기 퇴거 82% 자가 구입·민간전세
평균 보증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 4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이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실제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6개월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를 바탕으로 자산을 모은 뒤 내 집 마련 등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은 8년4개월이었다. 이 가운데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한 가구는 72%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 60%보

다 12%포인트 높았다.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9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현재까지 퇴거한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도 7년6개월로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의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는 상당수 입주자가 장기전세주택에 머무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저축과 청약 등을 준비한 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주거상향 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

금도 자산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입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하면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당시 보증금을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정하고, 입주 후 보증금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낮은 주거비는 저축과 청약으로도 이어졌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달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

약통장 보유율은 83.7%였다. 향후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는 입주자의 61.3%가 민간 아파트를 꼽았다.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전체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45%는 지하철역 반경 500m 안에 있으며 83%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가 입주했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뒤 바뀐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다시 공급된다.

내년부터는 제도 도입 초기 입주자들의 20년 만기도 처음 도래한다. /이현진 기자 hj@



metro

주담대 20% 쌓일 때, 연체 120% 급증... ‘영끌족’ 부실 우려

주담대 채권 잔액 779조2000억
주담대 연체 채권 2조2000억 집계
장기 연체 1조4000억 수준 유지
고정하여신 1조7000억, 2배 ↑
6월 연체율 줄었지만 해소 신호 아냐
취약 차주 등에 선제적 관리 필요

국내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가량 증가하는 동안 연체 채권은 120% 급증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와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정하여신도 크게 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0.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은 1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20% 급증했다. 대출 잔액 증가율보다 연체 채권 증가율이 약 6배 높은 셈이다.

주담대 연체 채권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말 1조6000억원에서 2024년 말 1조9000억원, 지난해 말 2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 증가했다.

장기 연체도 심상치 않다.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연체된 주담대 채권은 2022년 말 5000억원에서 2023년 말 9000억원, 2024년 말 1조1000억원, 지난해 말 1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말에도 1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상황이 지연된 차주뿐 아니라 상환 능력이 약화된 차주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도 증가했다. 고정·회수이문·주정손실 여신을 합한 고정하여신은 2022년 말 8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부담도 커졌다. 주담대 관련 대손충

당금은 같은 기간 3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을 고정하여신으로 나눈 적립률 역시 44.5%에서 51.1%로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연체 잔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6월 말 5117억3000만원으로 500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이 3680억2000만원, 우리은행 3419억6000만원, 하나은행 3026억6000만원, 신한은행 2168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의 연체 잔액은 2022년 말 1346억1000만원에서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약 3.8배로 증가했다.

지방은행에서는 연체율 급등 사례도 나

타났다. 전북은행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말 0.19%에서 올해 6월 말 0.95%로 6개월 만에 5배 뛰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에서 거액의 연체가 발생한 영향으로 설명했다. 경남은행도 같은 기간 0.14%에서 0.41%로, Sh수협은행은 0.17%에서 0.45%로 상승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0.19%, 카카오펌크는 0.1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전체 은행권 연체율만 놓고 보면 최근 흐름은 다소 엇갈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보다 0.11%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0%로 0.

05%p 떨어졌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년 동월보다 0.02%p 낮아졌다.

그러나 이를 부실 위험이 해소된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은행권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5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연체율을 끌어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분기 말 연체채권 상·매각 확대가 6월 연체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관건은 주택가격과 금리, 그리고 차주의 상환능력이다.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면 변동금리 주담대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집단대출과 다중채무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와 집단대출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 역시 연체채권 관리와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키옥시아도 참전... 삼성·SK, CXL 메모리 선점 속도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

키옥시아, XL-FLASH 결합 제품 공급
삼성전자, CXL 3.2 기반 ‘MD310’
SK, 서버-GPU 메모리 공유 기술 선보

인공지능(AI) 추론 확대에 대응할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확대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단계로 평가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일본 키옥시아도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며 차세대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는 최근 자사 기술 브리핑에서 조만간 주요 고객사에 CXL 메모리 모듈의 샘플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지연 플래시메모리 ‘XL-



SK하이닉스의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 2.0 기반 D램 솔루션 CMM(CXL 메모리 모듈)-DDR5 96GB 제품. /SK하이닉스

FLASH’와 전용 컨트롤러를 결합한 제품이다.

키옥시아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D램의 3분의 1을 CXL 모듈로 대체해도 성능 저하가 5% 미만에 그쳤다. 같은 비용을 기준으로 D램 일부를 CXL 모듈로 바꾸면 메모리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CXL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다. 여러 장치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어 AI 서버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대화가 길어지고 동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앞서 처리한 정보를 저장하는 ‘KV캐시’ 용량도 증가한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두고 대용량 KV캐시는 CXL을 통해 외부 메모리로 확장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AI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병목을 줄이기 위해 CXL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4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메모리·스토리지 전시 컨퍼런스 ‘FMS2026’에서 관련 제품과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행사에서 차세대 CXL D램 제품인 CMM-D(CXL Memory Module-DRAM) ‘MD310’을 전시했다. CXL 3.2와 PCIe 6.0을 지원하며 여러 호스트가 하나의 메모리 풀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용량을 할당할 수 있다.

AI 추론에 CXL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성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삼성전자 연구진의 실험 결과 긴 문맥을 처리하는 환경에서 CXL 기반 D램을 활용한 추론 처리량은 GPU 메모리만 사용한 경우보다 최대 1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SK하이닉스는 FMS2026에서 여러 서버와 GPU가 메모리를 공유하는 CXL 기반 ‘Pooled Memory’ 기술을 선보였다. 분산된 AI 시스템에서 KV캐시를 CXL 메모리를 통해 전달·재사용해 데이터 이

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방식이다.

D램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결합한 ‘CMM-Hybrid’도 공개했다. 대용량 데이터는 SSD에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D램으로 미리 옮겨 처리해 두 메모리의 용량과 속도를 함께 활용한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기업 마벨과 CXL 기반 PNM(Processing-Near-Memory) 솔루션 ‘CMM-Ax’도 개발했다. 메모리 주변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해 데이터 이동을 줄이는 기술로, 장문 기반 대규모언어모델(LLM) 추론을 겨냥한다.

업계 관계자는 “CXL은 서버 교체 주기와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을 고려하면 시장 확대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에이전트 AI 확산으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날 경우 대용량 메모리 수요와 함께 CXL 활용도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삼성전자-ASML, 12인치 포토마스크로 생산성 40% 높인다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 사업’ 참여
처리 영역 넓히고 스티칭 작업 줄여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하는 포토마스크를 기존 6인치에서 12인치로 키워 생산성을 높이고, 2028년에는 업계 최초로 첨단 D램 생산에 차세대 극자외선(EUV) 장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ASML이 주도하는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Large Size Mask Consortium)에 참여해 차세대 12인치 포토마스크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12인치 마스크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포토마스크는 반도체에 새길 미세 회로 패턴을 담은 원판으로 회로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6인치 마스크를 12인치로 키우면 한 번에 더 넓은 영역의 회로를 처리할 수 있다.

12인치 마스크 도입은 차세대 노광장비인 ‘하이 NA’(High-NA) 극자외선(EUV)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지만 한 번에 회로를 새길 수 있는 면적은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형 반도체는 회로를 나눠 새긴 뒤 연결하는 ‘스티칭’(Stitching) 작업을 거쳐야 해 공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마스크 크기를 12인치로 키우면 한 번에 처리하는 영역을 넓혀 스티칭 작업을

줄일 수 있다. ASML은 이를 통해 대형 첨단 반도체에도 하이 NA EUV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최대 4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처럼 칩 크기가 커질수록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도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다. ASML과 TSMC는 이날 2031년 12인치 마스크 시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33년 첨단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노광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도 개발 단계부터 컨소시엄에 참여 관련 기술과 표준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하이 NA EUV를 첨단 D

램 생산에도 적용한다. ASML과 협력해 2028년 업계 최초로 첨단 D램 생산에 하이 NA EUV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D램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기존 EUV로는 여러 차례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이 NA EUV를 활용하면 일부 공정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양사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왔다. 2023년에는 차세대 EUV 기반 초미세 공정 공동 연구시설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에는 하이 NA EUV와 12인치 마스크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오늘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마지막 터치패드에 손이 닿는 순간
관중의 함성 속에
어제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빨라지겠다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결과가 어떻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승리입니다

앞으로도 어제의 나를 넘어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국민과 함께 KB금융그룹이 응원하겠습니다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수영, 기계체조, 육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KB금융그룹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일파만파… 청문회 최대 쟁점 부상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익 목적의 청탁이었다” 주장
제넨셀 대표, 1심서 징역 3년
민주당-한동훈 공방까지 격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떠오른 ‘신약 임상승인 청탁 로비(신약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청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사건 자체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입장 발표만으로 사태가 진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신약 로비 의혹은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모씨가 정치권과 친분이 두터운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초선 의원 이었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2·3상을 승인을 목적으로 신약처장에 민원을 넣게 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10월12일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 절차 실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를 넣었다. 2주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3상을 승인했다. 당시 제넨셀은 1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다.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모씨는 식약처의 임상 승인 전인 10월19일 세종메디칼에 자신이 보유한 66만주를 63억원에 팔았고, 제넨셀의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올라 손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세종메디칼에 양도했다. 브로커 양모씨는 임상 승인 로비 대가로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모씨는 임상 승인을 계기로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0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동물 실험을 진행하던 중 실험 개체가 죽거나 피를 토한 부작용 사례를 사제하고 허위 실험 서류를 제출해 공모에서 탈락했다. 강모씨는 이와 관련 약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양모씨는 강모씨와 함께 민원 청탁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형태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후보자는 직접적인 금품수수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최대주주에 올랐고, 임상 승인 후 세종메디칼 주가는 8450원으로 급등한 후 세종메디칼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3개 투자조합이 이틀만에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치웠으며 이로 인해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2024년3월29일을 끝으로 거래가 전면 정지됐고 지난6월11일 상장폐지 결정됐다. 세종메디칼 소액주주들은 최고점 대비 95%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를 봤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당시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3년여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 민원 전화를 건 사실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다국적 회사들이 당시 한국에서 1조~2조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서 공정하게 그리고 자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우연히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과 달리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면서 친분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양씨의 청탁을 받고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임상 실험 절차 신속 처리를 부탁했던 것도 부적절하게 사건에 개

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넨셀이 허위 실험 자료로 임상 승인을 신청했고, 양모씨가 임상 승인의 대가로 자기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적인 목적의 청탁으로 볼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의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면서 녹취록 등 자료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며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이)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서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것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철없는 관중’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오판. 독약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정점식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李** 경제정책 맹목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해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칙이 하나 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주택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이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라”고 보탰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을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면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은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놓고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키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며 “외신은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며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를 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썩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한다”고 했다.

또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고 지난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며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고 규정하며, 이에 맞설 7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7가지 대안으로는 ▲치안 바로 세우기 ▲국민 재산 보호 ▲선관위 감시 ▲국민 주거사다리 수호 ▲국민 노후 보장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국가 안보 확립 등이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가 안보 관련 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야의원석에서 고성 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들이 무슨…”이라는 항의가 나오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싫으냐”고 맞받았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양당 의원들을 향해 “자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 니콜라스 홀에서 열린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프랑스, K-콘텐츠에 1조6000억 투자

李 대통령, ‘뤼미에르 서밋’ 공동 주재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정상회의의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며 K-콘텐츠 세일즈에 나섰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는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5년 간 총 1조6000억원(약 10억유로)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 에마누엘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국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 간 각각 5억유로(약 8000억원),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은 독립 펀드를 통해 자국 영상산업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이고 개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된 영화·영

상분야 국제 정상회의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극장의 위기 극복과 인공지능(AI)의 조화로운 공존, 독립영화 및 다양성 보호, 로컬 콘텐츠와 글로벌 플랫폼 간 상생을 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 미국영화협회(MPA) 회원사 집견, 영화인과의 대화 등의 자리를 통해 K-콘텐츠 세일즈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넷플릭스·디즈니·소니·NBC유니버설 등 주요 스튜디오·플랫폼 관계자들과 만나 “엄청난 큰 투자를 통해 대작을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누군가의 공감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작품을 만들고, 또 소재를 발굴하고 이런 분야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창동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씨 등이 참석한 ‘영화인과의 대화’에서는 K-콘텐츠의 성공 비결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묵묵히 변함없이”

많은 부사들이 있지만
더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사는 이것

빛나지 않아서
빛나는 부사

시련이 닥쳐도
변화의 태풍이 불어도
좋은 날이 와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루 하루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변함없이

누군가 우리의 필살기를 묻는다면
우리가 답하게 될 그 부사

“묵묵히 변함없이”

SK hynix

초심

삼성생명, 2분기 전체민원 감소 ‘3대 대외민원 감축’ 속도 낸다

5월부터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
부실고지 등 가입단계 관리 강화
계약 유지·보험금 지급 과정 관리

삼성생명이 올 2분기 전체 민원과 판매 단계 민원을 줄였지만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접수된 대외민원은 5개 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추진한 ‘3대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이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설명·응대 관련 민원을 얼마나 줄일지가 하반기 과제로 떠올랐다.

◆ 2분기 전체민원 1048건… 전분기 대비 1.5% 감소

8일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올 2분기 전체민원은 1048건으로 1분기 1064건보다 1.5% 감소했다.

민원 접수 경로별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생명에 직접 접수된 자체민원은 485건에서 432건으로 10.9% 감소했지만 금감원 등 외부기관을 거친 대외민원은 579건에서 616건으로 6.4% 증가했다. 전체민원이 16건 줄어든 동안 자체민원은 53건 감소하고 대외민원은 37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민원에서 대외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4.4%에서 58.8%로 4.4%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기인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대외민원은 446건에서 616건으로 38.1% 증가했다.

증가세도 단기에 그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대외민원은 지난해 1분기 404건에서 2분기 446건, 3분기 479건, 4분기 515건, 올해 1분기 579건, 2분기 616건으

로 5개 분기 연속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6%에서 58.8%로 높아졌다.

다만 원민원 건수만으로 삼성생명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다른 보험사보다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계약 규모를 반영한 보유계약 10만건당 대외민원은 3.25건으로 삼성·한화·교보·신한·NH·KB 등 주요 6개 생보사 가운데 교보생명(2.8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생보업계 전체 대외민원도 2분기 3.6% 늘어 업계 공통의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삼성생명의 증가폭은 이를 웃돌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공시되는 전체 대외민원은 1~4월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5월부터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2분기 중 5~6월에는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협회 통계에는 4월 실적이 포함돼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 판매단계 지표 개선… 판매 이후 과정 민원 유형별로 보면 판매 단계 지표는 개선됐다. 2분기 판매민원은 320건으로 1분기 355건보다 9.9%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350건과 비교해도 8.6% 줄었다.

반면 판매 이후 단계의 민원은 늘었다. 계약 유지 관련 민원은 44건에서 62건으로 40.9%, 보험금 지급민원은 482건에서 494건으로 2.5% 증가했다. 두 유형을 합친 민원은 526건에서 556건으로 5.7% 늘었고 전체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4%에서 53.1%로 높아졌다. 특히 지급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32.8% 증가했다.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줄었지

만 기존 고객의 계약 관리와 보험금 지급 과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은 셈이다. 다만 협회가 분류한 유지·지급민원 전체가 삼성생명 캠페인의 관리 대상인 설명 부족·응대 품질 관련 민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말 이로운지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상품 권유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는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5월부터 3대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을 가동했다.

삼성생명이 정한 관리 대상은 개인정보·부실고지 관련 민원과 가입 후 2년 이내 계약의 불완전판매 민원, 계약 유지·보험금 지급 과정의 설명 부족 및 응대 품질 민원이다. 민원 예방 자료와 현장 응대 가이드를 제작하고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영업현장을 방문해 교육하는 한편 부서별 감축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회사집계상 캠페인 관리 대상 대외민원이 시행 이후 1분기보다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감축 목표는 3분기 15%, 4분기 20%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감축 목표는 공시상 전체 대외민원이 아니라 캠페인이 정한 3대 대외민원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보험개발원

유재훈 신임 원장 취임

유재훈 제14대 보험개발원장(사진)이 8일 취임했다.

유재훈 신임 원장은 1968년생으로 성남고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기업구조개선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지낸 금융정책 관료 출신이다.

유 원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유 원장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AI 기술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데이터·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페이스미터(pacesetter)’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향후 업무 추진을 위해 ▲첨단기술 활용한 시장 개척 및 AI 기반 위험평가 역량 강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중재자 역할 강화 ▲실선24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저축은행, 대형사 중심 상반기 총이익 급증

상위 20곳 순이익 5746억4200만원
전년대비 약 3배… 실적 격차 벌어져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총이익이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오케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일부 대형사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면서다. 다만, 저축은행 수익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연체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8일 각 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5746억4200만원 규모다. 전년 동기(1809억7500만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OK저축은행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2291억1100만원을 기록하며 업계 순위 1위에 올랐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순이익 1530억3400만원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어 3위는 웰컴저축은행이, 4위는 SBI저축은행이 차지했다. 각 사의 당기순이익은 873억, 375억7000만원이다. 애규온, D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디올저축은행 등도 1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소수 대형사 중심의 수익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2위사의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상위 20개 저축은행 전체 순이익의 약 66%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위 대형사의 수익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1·2위였던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합산 순이익은 상위 20개사 전체 순이익의 52.5% 수준이었다. 올해 1·2위의 합산 비중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14%p(포인트) 확대됐다.

유가증권 투자이익이 저축은행 간 실적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82억6000만원에서 올해 1375억2000만원으로 약 17배(1565.6%) 급증했다. OK저축은행은 전년 동기(약 521억원) 대비 4.6배 늘어난 2419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일시적인 수익이어서 장기적인 수익 구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며 “금리가 오르면서 비용이 확대되는 등 현재 저축은행 영업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역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유가증권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이후 지속적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며 “유가증권 운용수익 등 비영업 수익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영업 확대를 통한 영업수익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제민 기자 wotjs4137@



우리은행은 지난 7일 마포구 소재 연화식탁에서 ‘인정가게 현판식’을 개최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왼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연화식탁 ‘인정가게 1호’ 현판식

지역사회 공헌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우리은행이 지역사회 공헌 의지가 큰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연화식탁’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및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와 ‘인정가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성장 의지와 가능성을 갖춘 영세자영업자를 발굴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사업이다. 고객에게 인정받는 가게로 성장하고, 사람 간에 따뜻한 정이 오가는 가게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우리은행과 서금원, 선한영향력가게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 및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가운데 지역사회 공헌 의지가 큰 영세자영업자 18명을 선정

했다. 선정된 인정가게에는 ▲공식 인증 현판 및 스티커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 ▲SNS·언론홍보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1호 현판식은 작은 음식점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정성 어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연화식탁’에서 개최됐다. 현판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은경 서금원장, 김성령 선영가 의장이 참여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포용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지식산업센터, 4년새 매매거래 70% ‘뚝’

부동산플래닛 2분기 거래 2179억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치솟는 가운데 거래규모가 4년 전과 비교하면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금액은 2179억원으로 전년 동기(3634억원) 대비 40%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8093억원)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매매거래량은 총 56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37건) 대비 33.1% 줄어든 규모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및 지식·정보통신(IT)산업, 벤처기업 등이 집단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된 아파트형 공장을 의미한다. 2020년대 초 유망 투자처로 떠올

랐지만 공급과잉에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이 더해져 공실률이 높아졌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주소 및 건축상태가 확인된 전국 1372개 지식산업센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112개, 260개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분기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전국적으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전체 거래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뤄졌다”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수요가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은 125건, 매매거래금액은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8%, 37% 감소했다. 매매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금천구(39건)였으며, 매매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영등포구가 1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토스뱅크, ‘키워봐요 31일적금’ 30만좌 돌파

토스뱅크의 ‘키워봐요 31일적금’이 출시 한 달여 만에 누적 개설 계좌 30만좌를 넘어섰다.

토스뱅크는 지난 8월 출시한 키워봐요 31일적금’이 첫 만기 시점인 지난 5일 기준 누적 30만좌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10만좌를 넘어선 지 약 3주 만이다.

이 상품은 31일 동안 매일 소액을 저축하면서 다람쥐 캐릭터를 키우는 챌린지형 적금이다. 저금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31일을 모두 채우면 최고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출시 일주일 이후 하루 저금 고객은 매

일 10만명을 넘어섰고 일평균 1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체 고객의 약 67%가 21일 이상 저금했으며 3명 중 1명은 31일을 모두 채웠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21일 이상 저금한 고객 비중이 모두 70%대를 기록했다. 특히 50대 이상 고객은 10명 중 9명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저축을 번거로운 의무가 아닌 매일 확인하는 습관으로 바꾼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재미있게 저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정제마진 뛰고 원유값 부담 줄고… 정유사 3분기 실적 ‘쑥’

복합정제마진 33.6달러 높은 수준
아람코 OSP 3개월째 마이너스 지속
SK이노 1.7조·에쓰오일 1조 영업이익
고마진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국내 정유사들이 높은 정제마진과 중동산 원유 도입 부담 완화에 힘입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복합정제마진은 9월 첫째 주 배럴당 33.6달러로 전주보다 0.3달러 하락했다. 최근 5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지만 업계가 통상 손익 분기점으로 보는 4~5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 2월 배럴당 11.8달러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3월 29.3달러로 뛰었다. 8월 말부터 드라이빙 시즌 종료 등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중동과 러시아의 정유설비 가동 차질로 석유제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쓰오일 공장 전경.

/에쓰오일

중동산 원유의 가격 조건도 국내 정유사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아람코는 10월 아시아로 공급하는 아랍라이트의 공식 판매가격(OSP)을 오만·두바이유 평균

보다 배럴당 2달러 낮게 책정했다. 9월과 같은 수준으로, 아랍라이트 OSP는 8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OSP는 산유국이 기준 원유 가격에 더

하거나 빼는 할증·할인 금액이다. 아시아 향 OSP가 낮아지면 기준유가에 더해지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사들의 조달 부담도 완화된다.

시장에서는 아람코가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요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OSP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정책이 지속되면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조건도 당분간 우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제마진 강세와 OSP 약세는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70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7.59% 증가한 규모다. 에쓰오일은 364.23% 늘어난 1조6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제능력을 보유한 SK에너지 자회사로 두고 있어 정제마진 상승에 따른 석유사업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정유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배터리 등 다른 사업의 실적 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에쓰오일은 정제마진 강세와 함께 OSP 하락에 따른 원유 도입 부담 완화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아람코를 최대주주로 두고 중동산 원유를 공급받는 만큼 낮은 OSP가 정유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제마진 강세가 올해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과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정상화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과 수출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공급 부족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과 러시아의 정유설비 가동 차질로 석유제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평균을 웃도는 정제마진이 적어도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HD현대, 필리핀과 조선·방산 협력 확대

필리핀서 합정 12척 수주해 6척 인도
정기선 회장·국방장관 협력 확대 논의
수빅 조선소 가동해 현지 생산기반 강화

HD현대가 필리핀과 10년간 이어온 합정 사업을 기반으로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해군 현대화와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수빅 조선 거점을 활용해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HD현대에는 정기선 회장이 전날 서울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나 조선·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HD현대와 필리핀의 합정 사업은 지난



지난 7일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이 만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HD현대 정기선 회장).

/HD현대

2016년 필리핀 해군의 첫 호위함 계약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신규 합정 건조와 후속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HD현대에는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합정 12척을 수주해 이 가운데 6척을 인도했다.

현지 조선 거점인 수빅의 HD현대필리핀도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HD현대에는 이곳에서 건조한 첫 선박을 최근 진수했으며 내년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 상황에 맞춰 생산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테오도로 장관은 HD현대와의 협력이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조선산업 활성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HD현대의 현지사업 기반 확대를 환영했다. 양측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 세계 6개 도시서 폴드8 옥외광고

국내 사전판매 144만대 역대 최고

삼성전자가 서울과 도쿄,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옥외광고를 내걸며 ‘갤럭시 Z 폴드8’ 알리기에 나섰다. 애플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공세로 폴더블폰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신제품 흥행을 발판으로 시장 선두 굳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서울 광화문 KT스퀘어를 시작으로 코엑스 케이팝 라이브(K-POP LIVE), 일본 도쿄 시부야역, 영국 런던 파카딜리 서커스와 아우터넷 등 세계 6개 주요 랜드마크에서 ‘웰컴 투 폴더블(Welcome to Foldables)’ 디지털 옥외광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고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과 내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상에는 ‘울트라 썬(Ultra Thin)’,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폴더블(The world’s lightest fold)’, ‘오래 가도록 설계된(Built to outlast)’, ‘등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폴드 시리즈를 거듭하며 두께와 무게,



도쿄 시부야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를 활용한 ‘웰컴 투 폴더블(Welcome to Foldables)’ 옥외 광고 모습. /삼성전자

내구성을 개선해왔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Z8 시리즈는 초기 판매에서도 전작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폴드8은 지난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44만대가 팔리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판매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전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은 갤럭시 Z 폴드8을 선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양성운 기자 ysw@

기아

하반기 대규모 인재 채용

AI·R&D 등 30개 부문 선발

기아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집중 채용에 나선다. 최근 3년 내 최대 규모로 신입 인재를 선발하고 AI를 활용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전형을 도입하는 등 미래 산업에 맞춘 인재 확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아는 오는 9월 15일부터 2026년 하반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생산·제조, IT, 사업·기획, 경영지원, 연구개발 등 총 30개 부문에서 신입과 경력 인재를 모집한다. 신입 채용은 2027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학사·석사 학위 소지자가 대상이며, 지원서 접수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다. 경력 채용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채용의 핵심은 AI 시대에 맞춘 평가 방식이다. 기아는 업계 최초로 ‘AI 문제해결력’ 검증 단계를 도입한다.

포스코, 9년 만에 車강판 설비 신설

4800억 투입해 광양 8CGL 착공

2028년 준공해 연산 45만t 확보

포스코가 4800억원을 투입해 9년 만에 자동차용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설비를 신설한다. 저탄소·대형차용 강판 생산 기반을 확충해 고급 자동차강판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스코는 8일 광양제철소에서 연산 45만t 규모의 8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이번 투자로 포스코의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능력은 연간 495만t까지 늘어난다.

8CGL은 자동차 외판용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에 특화된 설비다. 용융아연도금강판은 강판 표면에 아연을 입혀 내식성과 표면 품질을 높은 제품으로 자동차 외판과 가전 등에 사용된다. 포스코가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유혜은 기자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현지화 성과 첫 공개

K2PL·계열전자 전시해 현지 협력
폴란드산 위장 시스템 K2 전자 적용

현대로템이 폴란드형 K2 전차(K2PL)의 현지화 성과를 처음 선보인다. 폴란드 업체의 장비를 K2 전차에 적용하고 현지 업체와 계열전차를 공동 개발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열리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전시회다. 지난해에는 35개국 811개 업체가 참가했다. 5년 연속 참가하는 현대로템은 올해 국내 방산기업 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한

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 ‘K2PL존’을 마련한다. 폴란드군 요구에 맞춰 개발하는 K2PL과 교량전차, 개척전차, 구난전차 등 계열전차를 전시한다. K2PL에는 능동방호장치(APS),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폴란드 방산업체 미란다의 이동식 위장 시스템(MCS)도 처음 공개한다. MCS는 전차가 이동하거나 전투하는 동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위장막으로 야간투시장비와 열상감시장비 등 각종 센서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춘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K2GF)에 MCS를 장착해 선보인다.

폴란드 업체 오브렘과 공동 개발 중인 K2PL 기반 교량전차도 처음 공개한다.

/유혜은 기자

중기부, 지방 원도심 ‘청년·창업가·문화예술인’으로 채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국토부·문체부와 내년부터 추진
지역당 최대 365억 사업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을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로 채운다.

중기부는 국토부, 문체부와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내년에서 새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우선 선정해 내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후엔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해 지속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가운데 현행 도시·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을 지원하고, 매칭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조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 또는 장기간 임대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해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

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조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 대표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중기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해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202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한다.

아울러 ‘창업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창업도시 선정지역(10곳)은 창업 지원기업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한 개의 가계가 상권을 바꾸며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전기차 충전기, 이용수요 맞춘 배치 중요

전국 충전 인프라 54만1567기 집계
대수 확대보다 실제 이용률 높여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국내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54만기를 넘어선 가운데 충전산업의 과제로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에서 실제 이용률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충전기를 배치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54만1567기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GS차지비가 8만8242기로 가장 많았고 파워큐브 6만9932기, 에버온 5만5097기, 플러그링크 5만1198기, LG유플러스볼트업 4만3237기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민간 충전사업자가 보유한 충전기는 30만7706기로 전체의 56.8%에 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충전기는 9525기, 한국전력공사는 1만825기다.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채비 충전기 사진. /채비

주체 기준으로 국내 충전 인프라에서 민간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구조다.

출력별로는 50킬로와트(kW) 미만 충전기가 대부분이다. 30kW 미만 48만2298기와 30kW 이상~50kW 미만 2172기를 합하면 48만4470기로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반면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는 1만2681기로 2.3% 수준이다.

다만 저출력 충전기 비중이 높다는 것

만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나 업무시설처럼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는 곳에서는 완속충전기가 이용 형태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도심 충전 거점처럼 짧은 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급속·초급속 충전기의 필요성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충전요금을 출력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했다. 30kW 미만은 킬로와트시(kWh)당 295원인 반면 200kW 이상은 393.1원으로 책정됐다. 고출력 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 등을 요급에 반영한 것이다. 개편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와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민간 충전기에 적용된다.

충전기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는 설치 대수 확대보다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운영 효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용 수요와 체류시간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충전기를 배치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승혁 기자 sh95@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8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 단국대서 ‘모두의 창업’ 알려

1라운드 선발 규모 1만명으로… 2배 ↑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단국대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열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붐 추가 조성에 나섰다.

이날 캠퍼스 투어는 대학 내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지원내용과 참여 기회를 알리고 먼저 도전을 시작한 1차 도전자들의 경험을 예비 창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창업 플랫폼이다. 지난 1차에는 약 6만3000명이 참여했으며, 아이디어 심사와 멘토링 등을 거쳐 1100명의 도전자가 2라운드에 진출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모두의 창업’은 창업 도전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라운드 선발규모를 1차 대비 2배인 1만 명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전국 대학 등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이어가면서 청년들에게 창업 도전 기회를 알리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이소영 “자영업자의 지속 불가능 비용구조 개선 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공공배달앱 지원 개선 시사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8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직후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는 중국 유통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 충격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산발적 지원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자는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



영업자가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건 자영업자 비용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다. 고금리, 고물가는 물론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도 예컨대 주문비 2만원 중 6000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의 총 경영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해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배달앱은 두가지 정책 방향으로 접근돼왔다. 민간 배달앱 기업과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방안과 공공 배

달앱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이 중 정부가 공공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낮은 수수료의 배달앱 육성 방안에 대해 언젠가 의견을 밝히겠다”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누락 논란에 대해 오해 해소를 위해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HMM-발레, 4.7조 규모 장기운송 계약

계약기간, 2030년부터 선박당 25년

HMM이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발레(Vale)와 4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벌크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HMM은 발레와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30년부터 선박당 25년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과 9월 발레와 체결한 총 1조665억원 규모의 10년 장기운송계약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수주다.

HMM은 계약수행을 위해 지난 6월 발주한 뉴캐슬마스크급 벌크선 8척을 투입한다. 선박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되며 메탄올·에탄올·중유를 사용할 수 있는 3종 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다. 향후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 추진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풍력 보조추진장치인 로터 세일도 적용한다.

HMM은 최근 단기 용선 비중을 줄이고 대형 화주와의 장기계약을 확대하며 벌크사업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벌크부문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약 2400억원을 기록했다.

선대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44척이던 벌크선대는 올해 상반기 61척으로 늘었다. 기존 드라이벌크와 탱커뿐 아니라 가스선, 자동차운반선(PCTC), 다목적선(MPV) 등으로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이승혁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편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Salut 
Lucide
UV PROTECTION PATCH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UV-A 98% / UV-B 99% 차단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 60mm 대형 패치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AI서 로봇·데이터센터까지… 삼성SDS, ‘AI 풀스택’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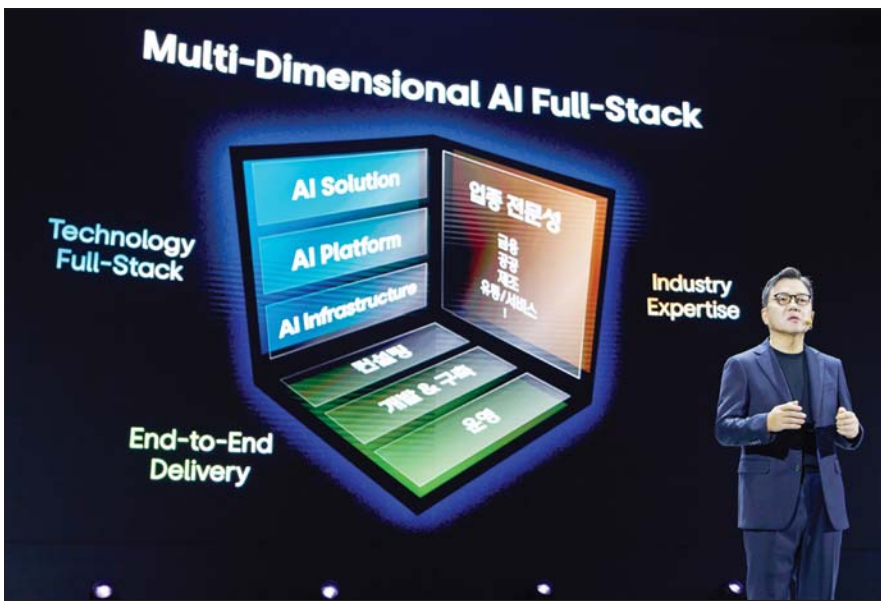
오픈AI·엔트로픽 ‘글로벌 동맹’
이준희 대표 “기업 보안 기여”
MES 현장 경험으로 시장 공략

삼성SDS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동맹을 강화하고 제조 현장의 로봇 전환(RX)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실제 업무 성과로 연결하도록 돕는 ‘다차원 AI 풀스택’ 전략을 앞세워 AX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픈AI·엔트로픽과 ‘글로벌 동맹’… AI 보안 혁신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8일 ‘리얼 서밋 2026’에서 오픈 AI와의 협력에 대해 “데이브레이크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내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내 기업 고객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내부 보안 통제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4개월 전부터 오픈AI와 물밀 작업을 이어왔다. 데이브레이크 이니셔티브는 오픈AI가 가동하는 사이버 보안 방어 프로그램으로, 삼성SDS는 최근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 오픈AI의 최첨단 모델 ‘GPT-6 아스트라’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 취약점 탐지와 보



삼성SDS가 다차원 AI 풀스택을 추진한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가 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6’에서 키노트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SDS

안 패치 생성을 아우르는 AI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설명이다.

엔트로픽과도 국내 최초로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셀렉트 티어’로 나선다. 셀렉트 티어는 인증 엔지니어와 실제 AI 활용 사례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삼성SDS는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 ‘클로드’와 결합한 서비스로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AX 전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삼성SDS는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현장 밀착형 엔지니어(EDI)를 연내 200여명으로 확대해 보안 전문 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조 RX 공략…“핵심 기술은 오펜트레이션”

삼성SDS는 지난 25년간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기업의 제조실행시스템(ME

S)를 구축하며 쌓아온 현장 경험을 통해 피지컬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안에 로봇 오펜트레이션 플랫폼을 출시하고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로봇오펜트레이션이란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들을 소프트웨어 하나로 통합·제어해 유기적으로 지휘하는 기술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삼성SDS는 AX 사업을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내에 RX사업팀과 RX실행팀을 신설했다.

MES(생산관리시스템)는 삼성SDS가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 기반 IT 서비스다. 삼성SDS는 430여개 제조 자동화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관계사 등을 중심으로 구축한 제조 라인만 1000개 이상이다.

피지컬 AI 분야도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 ‘윌드 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로봇 바디와 같은 기술에 경쟁력을 갖춘 중국 로봇 핸드 기업과도 협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브리티웍스’부터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다차원 AI 풀스택’ 추진

이날 삼성SDS가 제시한 향후 AX 전략은 ‘다차원 AI 풀스택’으로 요약된다. AI 플랫폼·솔루션에서 AI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발휘해 ‘진정한 AX 실행’을 돕고 이를 성과와 연결한다

는 구상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사 업무에 AI를 먼저 적용해 성과를 검증하는 ‘클라이언트 제로’ 전략을 추진해 7대 업무 과정에 AX 핵심 요소를 시범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사내 7대 메가 프로세스인 개발·구매·품질·경영지원·사업이행·마케팅·영업 등이다.

또한 기업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고도화한다. 오는 10월 대표 AI 에이전트 서비스 ‘브리티웍스’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한 ‘브리티웍스 코워크’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MCP를 활용해 AI 에이전트의 실행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데이터센터와 인수합병(M&A)에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자금 회수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삼성SDS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미, 춘천 등에 AI 데이터센터(AIDC)를 건설 중이다. 또 ‘AI 고속도로’로 불리는 정부 주도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약 1만 5000대의 첨단 GPU가 탑재되는 메가 데이터 센터로, 2028년 가동이

목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피지컬 AI 기반 무인공장 만든다

카이스트·다임리서치와 업무협약
글로벌 진출·사업 기회 발굴 협력

KT가 글로벌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T는 카이스트, 다임리서치와 피지컬 AI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무인화 공장 구현을 위한 다크팩토리 플랫폼을 사업화하고, 피지컬 AI 사업 기회 발굴, K-피지컬 AI 글로벌 진출을 협력한다. 다크팩토리란 사람 없이 로봇과 설비로만 24시간 가동되는 무인 공장을 의미한다.

다크팩토리 플랫폼 사업화는 이번 협력의 핵심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조 현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화·자동화 플랫폼을 개발·실증하는 것으로 카이스트와 다임리서치가 5년간 함께 참여한다.

먼저 KAIST와 다임리서치가 보유한



지난 7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피지컬 AI 기술 협력 업무협약에서 (오른쪽부터)KT AX사업부 문장 박상원 전무, KAIST 최성윤 연구부총장, 다임리서치 장영재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물류·제조 로봇 관계 플랫폼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술을 검증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조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KT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과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로봇과 가까운 현장에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엣지 AI와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봇의 실시간 판단과 제어도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의 AI 학습과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AI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통합 역량을 결합해 제조 현장에서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환경도 구현한다.

/조민선 기자

LGU+, 입문형 스마트홈 ‘홈캠 라이트’ 선택

화재·영상·해킹 보상 보험도 포함

LG유플러스는 입문형 스마트홈 서비스 ‘홈캠 라이트’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홈캠 라이트는 월 5500원에 홈캠 이용과 클라우드 저장 등을 함께 제공하는 입문형 상품이다. 화재, 영상, 해킹 보상 보험도 포함한다.

초보 부모와 반려인 등이 주요 고객으

로 부담없는 가격과 보안성을 동시에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보험 서비스의 경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 영상 해킹 피해에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홈캠 라이트 상품에 포함된 ‘맘카 라이트’는 QHD 고화질을 지원해 주·야간에 영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앱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받고 최대 4대의

카메라 영상을 한 화면에서 동시 확인 가능하다.

저장 공간도 넉넉하다. SD카드에 24시간 상시 녹화를 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20GB 용량 한도로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보안과 안심 혜택도 눈길을 끈다. 기기별 고유 암호기를 생성하는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기반의 보안칩을 적용했다. 2단계 로그인 인증과 영상 데이터 암호화도 구현해 고객은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SKT, 연말까지 T로밍 데이터 추가 혜택

‘바로’ 요금제, 최대 16GB 추가 제공

SK텔레콤이 T로밍 데이터 추가 프로모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로밍 서비스 ‘바로’ 요금제 가입 시 최대 16GB를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대 1Mbps 속도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처음 선보인 이후 고객 호응이 이어졌다. 특히 데이터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바로 8GB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 비중이 프로모션 전 대비 15% 증가했다. 가족 로밍 고객은 누적 505만명을 돌파했다.

프로모션 기간 진행한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T로밍 이용 고객들은 현지 통신사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 꼽았

다. T로밍은 현지에서 데이터가 불안정한 경우 다른 통신사를 선택해 쓸 수 있다.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과 사용 편의성도 주목됐다. 별도 심(SIM)을 구매하고 설치할 필요 없이 현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로밍 연결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한국 번호 그대로 한국과의 연락이 끊김 없이 지속되어 중요한 연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후기도 나왔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고객이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가족로밍 고객과 청년 고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족로밍은 3000원만 추가하면 가족 구성원 최대 5명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요금 부담이 약 6000원대로 크게 낮아진다.

/조민선 기자

메타빌드, AI 플랫폼 앞세워 공공 AX 정조준

행정·복지·세정·예산 등 분야 확대

인공지능(AI)·연계 플랫폼 기업 메타빌드가 행정·복지·세정·예산·국가지식 분야로 AI 전환(AX)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메타빌드는 AI 활용 초기 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기반으로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복지행정 AI 안내도우미 ▲복지지역특화 AX-스프린트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 ▲AI-ON 예산 플랫폼 사업 등에 선정됐다.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집현전의 ‘AI 국가지식상담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회사는 AI 통합 플랫폼 ‘LLaMON AX’와 통합 연계 미들웨어 플랫폼 ‘MESIMAX’를 주력으로 내세운다. LLaMON AX에는 에이전트빌더, 도큐먼트 AI, 검색증강생성(RAG), 시각언어모델(VLM)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음성 기능이 들어간다. MESIMAX는 기업서비스버스(ESB), API 게이트웨이, MCP 게이트웨이, 데이터허브, 망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두 플랫폼은 통합뿐 아니라 개별 제품 단위로도 GS 인증을 받아 조달 소용품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에 공급된다.

/김보민 기자 kbm@

정부 재정 더해 총 7200억 규모… 12개 첨단전략산업 투자

다시 돌아온 ‘국민성장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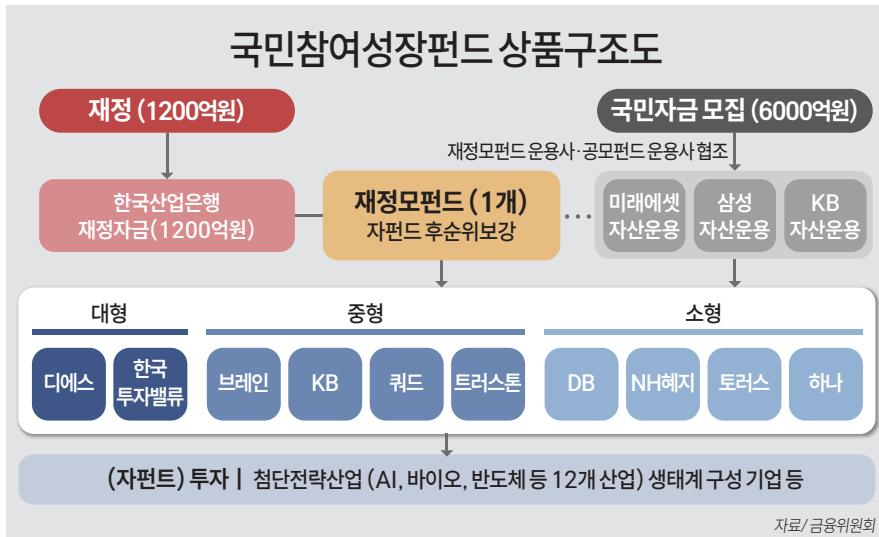
오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판매
기술력 갖춘 기업에 성장자금 공급
1차 ‘오픈런·조기 소진’ 수요 몰려

국민이 출자한 자금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말 출시된다. 정부가 후순위 재정을 투입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일부 낮춘 상품이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5년간 중도 환매도 할 수 있어 장기 투자 여부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

◆ 국민자금 6000억원, 첨단산업 성장에 투자

금융위원회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의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모집액 60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마감한다.

이번 펀드는 국민이 투자한 6000억원에 정부의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출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



는 구조지만, 손실 규모가 후순위 재정투입액을 넘으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상품은 공모펀드가 여러 사모 자펀드(실제 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하위 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각각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실제 기업 투자는 선정된 10개 자산운용사가 맡는다.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자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와 수익률은 같다.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 부문에서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중형 부문은 브레인·KB·퀴드·

트러스톤자산운용, 소형 부문은 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이 맡는다.

이번 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바이오, 방산, 로봇, 미래차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전체 자금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방식으로 공급하고,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한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펀드의 정책 목표다. 개별 자펀드 결성액의 40% 이내에서는 운용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해 수익성과 안

정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민관 합동자금 30조6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2차 국민 모집액 1조2000억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합쳐 총 1조4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 5년간 환매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이 상품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여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할 수 있다. 투

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로 감면받은 세액도 추정된다.

비상장주식과 메자닌 등 즉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이 포함되는 만큼 단기간에 운용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연간 보수수수료는 약 1.2%이며 온라인 가입 시 약 1.0% 수준이다.

판매 첫 주에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몫으로 배정한다. 근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 등이 대상이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남으면 다음 달 8일부터는 일반 물량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비중도 첫 주에는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고 둘째 주부터 제한을 없앤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이번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당시 전용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차 펀드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입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판매 첫날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온라인·영업점 물량이 잇달아 소진됐다. 일부 증권사의 온라인 물량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동났고, 은행 영업점에는 개점 전부터 가입자가 줄을 서는 ‘오픈런’도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美 관세·생산 차질에 구리값 사상 최고

최근 12개월간 가격 상승률 47%

美, 두 달째 구리 관세 여부 결론 못내
칠레 광산 붕괴사고에 생산량 둔화

국제 구리 가격이 미국의 정제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과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이 맞물리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중장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리 재고가 미국에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공급 불안도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8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1만 4509.50달러를 기록 중이다. 전 날 장중에는 톤(t)당 1만 4533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최근 12개월간 구리 가격 상

승률은 47%에 달한다.

최근 상승세에는 미국의 정제 구리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정제 구리 관세 부과 여부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지난 6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정제 구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글로벌 상품업체들이 수십만 t의 물량을 미국으로 미리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구리 가격이 유럽과 아시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지역 간 가격 차이를 노린 선반입도 늘었다.

이에 따라 뉴욕상품거래소 구리 재고는 지난해 2월 8만 t에서 최근 65만 2200 t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LME 창고의 가

용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현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물 재고 감소는 구리 가격 하락에 베풀었던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도 불러왔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오르지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을 사들이는 ‘숏스퀴즈’가 발생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크리스티안 시푸엔테스 칠레 구리·광업 연구센터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종 수요의 과잉보다는 관세 가능성이 거래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수요 과잉이라기보다는 지역별 재고 불균형에 따른 부족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공급 차질도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현지 광산

붕괴 사고와 구리광석 품위 저하 등으로 생산이 둔화하면서 칠레의 지난달 구리 수출액은 46억 3000만 달러로 전월의 53억 7000만 달러보다 감소했다.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칠레의 생산량이 하반기에도 회복되지 못하면 전 세계 광산 공급량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노후화한 대형 광산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광산 개발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공급 확대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구리 가격 흐름은 미국 정부의 관세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정제 구리 관세가 백지화되면 미국에 쏠린 재고가 다시 풀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 반대로 관세 부과가 확정되고 칠레의 생산 차질까지 장기화하면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허정윤 기자

무디스 “공공기관 개편 방안 신용도에 영향 없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편 방안이 대상 기관들의 신용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정부 관련 발행기관(GRI·Government-Related Issuers) 개편 계획을 이같이 평가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비금융 GRI 가운데 주요 변경 사항은 ▲한국전력공사(Aa2 안정적) 산하 5개 화력발전 자회사 통합 ▲한국가스공사(Aa2 안정적)와 한국석유공사(Aa2 안정적)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Aa2 안정적)의 2개 법인 분할이다.

무디스는 “정부가 아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개편 대상 GRI들의 신용도를 실질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들의 신용도는 에너지 안보 또는 공공정책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반영할 매우 높은 정부 지원 가능성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분할의 경우 분할된 두 법인이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유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전 화력발전 자회사 통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에서 발생하는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고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 더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GRI가 만들어질 것으로 봤다.

2026년 상반기 발전 실적 기준으로 통합 법인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해 국내 최대 발전사업자가 된다.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사고, 美 국채·배당으로 변동성 대비

해외주식 Click

일주일 새 SOXL 10.7억 弗 매수
불확실성에 SGOV·SCHD도 담가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두고 투자자들의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10억 달러 넘게 사들이며 공격적인 배팅에 나선 동시에 초단기 미국 국채와 배당 ETF에도 자금을 넣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상승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투자심리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 IBro)에 따르면 지난 한 주(결제 기준, 8월 31일~9월 7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결제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로 10억 7551만 달러를 기록했다. 2위인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SGOV)’의 1억 5735만 달러보다 7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SOXL에 집중된 자금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공격적인 투자심리를 보여준다. 개별 종목에서도 엔비디아 8064만 달러, 브로드컴 7468만 달러의 매수결제가 이뤄졌다. 주요 반도체 기업도 나란히 상위권에 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반도체로 향하는 모습이다.

빅테크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졌다. 알파벳 클래스A의 매수결제액은 9289만 달러, 메타는 8149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이온큐(6432만 달러)와 테슬라(6078만 달러) 등 성장주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금리 부담에도 기술주 상승 가능성에 베풀는 수요가 여전히 강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왔다.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SGOV가 전체 2위에 올랐고, 슈왓 미국 배당주 ETF(SCHD)도 7234만 달러가 매수됐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한

/허정윤 기자

AI산업 키울 ‘물·에너지’… 대구서 미래 인프라 해법 모색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최
세계 50여개국 1만여명 참가
한수원, 주최기관으로 첫 합류

기후위기 심화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첨단산업 확대로 안정적인 물·에너지 공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래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장이 대구에서 막을 올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11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고위급 정부 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물 분야 전문가 등 약 1만 명이 참가한다.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인 국제물주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 기관으로 처음 합류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물과 에너지의 연계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1일 경남 거제시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현천을 찾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50년간(1970~2021년) 발생한 기후 재해의 84%가 홍수, 가뭄 등 물과 관련된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형태가 물 문제라는 의미다. 여기에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급격히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산업을 움직일 막대

한 양의 물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올해 행사는 ‘물·에너지·인공지능: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Water, Energy, AI: Securing Our Future)’를 주제로 정했다. 물, 에너지, AI가 개별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서

로를 지탱하며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위급 회의, 학술·정책토론회, 비즈니스 미팅 등 약 50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주요 토론회(세션)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공지능·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하는 물·에너지 기반시설’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물·에너지 인프라 체계, 수력발전의 디지털 전환,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 연계 방안을 다룬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요소인 ‘초순수’ 생산 및 산업폐수 재이용 등 현장 중심의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인공지능 기반 물·에너지 관리의 지능화’ 부문에서는 AI가 방대한 물 데이터와 에너지 소비 유형을 실시간 분석·예측하는 첨단 기술을 다룬다. AI 기반 스마트 하수처리,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 대응, 누수 저감 기술 등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수자원 관리 방안이 모색된다.

글로벌 협력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무대도 대폭 확대된다. 각국장·차관급 인사가 모여 전 세계 물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워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실행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물 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도 마련된다.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물관리 현황과 최신 기술이 공유되며, 초순수 필터·폐수처리·정밀 측정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동관’이 운영된다. 신기술 공개 행사(오픈 이벤트)를 통해 AI 기반 상수관망 진단 로봇, 먼진형 물탱크 등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도 대중에 첫선을 보인다.

이 외에도 도시홍수 저감, 맨홀 사고 및 지반침하 예방, 과불화화합물 제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속 물 현안 세션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청소년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길거리 공연 등도 함께 펼쳐진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마련된 물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인공지능을 만나 더욱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으로 발현될 것”이라며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물·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중 농업협력위 재개… K-푸드 수출 확대

농식품부, 5개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한-중 수의·방역 정례협의체 제언

한국과 중국 간 농업협력위원회가 8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 고위 관료가 마주하는 농업협력위 개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이래로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이 이달 6~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농업 외교 행보에 나섰다 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중국 농업농촌부 및 해관총서의 고위급 인사와 만나 양국 농무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현지에서 진출해 있는 K-푸드 수출기업들과도 면담했다.

7일에 개최된 제19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총 5개 의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학기술 기반 농업 혁신 ▲기후변화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보전 등이다.



김종구(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에서 장바오 평 해관총서 부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의제 선정에는 양국 공통의 관심사 및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 등이 반영됐다. 양측은 주요 정책을 소개한 뒤, 공동 대응 및 협력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김 차관은 중국 농업농촌부의 장쩌리 부부장과 가진 면담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및 가축방역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한-중 수의·방역 정례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관련 해 연구소·기업 등 기관 교류를 활성화하

고 초국경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및 방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장 부부장은 긍정적 반응을 내보이며 화답했다.

해관총서의 장바오평 부서장 면담에서는 작년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국산 감 수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0월 중 우리 감 수출단지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산자원공단, 불법어구 철거선 안전망 강화

해수부와 합동 안전점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서해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안전강화 훈련에 나섰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광주 통합특례시 여수 우두리항에서 불법어구 수거철거전용선 3척(청정바다 1·2·3호)에 대한 안전점검이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 합동으로 실시됐다. 선원들 대상의 비상훈련·안전교육도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불법어구 철거작업에 투입

되는 청정바다호의 선박 전반의 안전상태와 주요 장비의 이상 유무,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 운항 및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선원 대상 교육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전문인력이 맡았다. 경비단은 불법외국어선 조업 행태 및 불법어구 제거 작업 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의 안전보건실은 화재·밀폐공간 사고 등 비상상황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시 작업중단과 비상연락,

신속대피 및 구조·응급처치 등 상황별 대응절차를 숙지하도록 했다.

공단은 연내 예정인 본격 철거작업에 앞서 작업 전·중·후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생태계 회복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불법어구 수거철거전용선(감척된 어선의 용도 변경)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현장 투입으로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인들의 어획 환경 개선 효과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제주형 에너지 자족마을 조성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등 실증 추진

마을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 전기를 인공지능(AI)이 관리하고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쓰는 ‘에너지자족형 마을’이 제주에 조성된다. 주택 난방의 전기화와 전기차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제주의 이점을 활용해 주거·이동·농업 분야를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혁신 모델 실증이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자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산에너지 실증 사업을 제주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말

현장 실사를 거쳐 향후 5년간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모델은 한림읍 또는 대정읍 일대 2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제로 주택단지’다. 각 주택의 태양광,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AI 가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한국형 크라켄(AI 기반 에너지 관리) 모델’이 적용된다. 개별 가구에서 쓰고 남은 전력은 마을 내 이웃과 나누어 쓰고, AI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준다.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낮추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은 지난 7일 체코수소협회와 ‘원자력 청정수소’ 용역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한수원, 유럽 원자력 수소시장 진출 ‘시동’

체코수소협회와 용역 성과공유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수소협회(HYTEP)와 손잡고 원전 전력을 활용한 ‘원자력 청정수소’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수원은 지난 7일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체코수소협회와 ‘용역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025년 9월부터 11개월간 진행된 ‘체코 및 유럽연합(EU)의 원자력 수소법·제도·정치 환경 분석 용역’의 최종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수원은 그간 체코를 거점으로 유럽 청정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2024년 체코 현지에서 ‘한-체코 수소 협력 포럼’을 개최한 이후 체코수소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현지 최대 수소 콘퍼런스인 ‘Hydrogen Days’에 2년 연속(2025~2026년) 참가하는 등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알레스 두체크 수소협회장은 “이번 협력 성과가 체코 현지에서 원전 전력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 개발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극장 용
THEATER YONG
2026 THEATER YONG

LIVE QUEST MUSICAL

네 안의 숨겨진 요원을 깨워라!

예매하기
QR 스캔!



너의 선택이
이야기를
바꾼다

WHO
ARE
YOU?

라이브 퀘스트 뮤지컬
CODE NAME

코드네임

2026.

09.12 (토) - 10.18 (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국립중앙박물관 내)

LIVE, CHOICE, ADVENTURE

원작 강경수 주치·제작 NMF 국립박물관문화재단 OORACHACHA STORY 기획·홍보마케팅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예매 티켓링크, 인터파크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공연문의 02-766-9001

전남광주특별시, 울산과 車 제조 AI 전환… 휴머노이드 실증

2027년부터 5년간 580억 투입
의장공정 특화 거점 단계적 구축
고위험·고난도 작업 자동화 확대
생산현장 인력공백 대응기반 마련
미래차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인 전남광주와 울산이 '자동차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을 통한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7일 울산에서 '자동차산업 분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현 통합특별시 미래차산업과장, 송규원 울산광역시 산업전환과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은 국내 대표적 자동차 생산도시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위험·고난도 공정 기피 현상 등에 따른 생산현장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인간형



울산 자동차산업 제조 M.AX 협력 협의회.

/전남도

로봇(휴머노이드)과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20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40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양 도시에 각각 45억원씩 총 90억원이 포함됐다.

양 도시는 협력사업을 통해 ▲자동차 의장공정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실증

센터 구축 ▲인간 수준의 제조 휴머노이드 양성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제조환경 휴머노이드 내구·신뢰성 실증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제조사 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대차-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아틀라스·옵티머스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도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로서 연대 의지를 다졌다.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 EV공장을 방문해 미래 전기차 생산현장을 견학

했다.

이승주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광주지역본부장은 "전남광주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작업 안전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검증 표준은 향후 지역 부품기업 전반으로 확산해 미래차 전환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진수 울산테크노파크 센터장은 "울산은 차체와 대형모듈 등 고중량·고위험 공정에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을 우선 투입하고, 사전검증과 실증을 거쳐 현장 적용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미래차산업과장은 "자동차 제조공정에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의 도입이 확대되는 흐름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국회와 적극 협력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하동, 인구 6년 7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8월 말 3만9565명 전월비 26명 늘어
귀농·귀촌 유입에 청년 인구도 순증

2020년 1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던 하동군 인구가 6년 7개월 만에 순증가를 기록했다.

하동군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인구는 3만 9565명으로 전월보다 26명 늘었다. 증가 요인은 전입 240명 등 총 244명, 감소 요인은 전출 176명·사망 41명 등 총 218명으로 집계됐다.

하동군 인구는 지난해까지도 매년 2% 가량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3년 말 4만 1606명이던 인구가 이번엔 3만 9565명까지 준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있었지만, 그 공백을 채워온 것은 매년 인구의 4% 안팎에 이르는 귀농·귀촌 유입이었다.

이번 순증가는 이런 구조적 흐름 속에

서 나온 소규모 반등으로 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어르신 건강 관리, 청년 정착 지원 등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군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올여름 기록적 폭염 속 8월 한 달간 전국 최초로 '무더위 피해 예방단'을 운영하고 397개 전 경로당에 특별운영비 1억 1960만원을 투입하는 등 선제 대응한 결과, 8월 사망자는 41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어 자연감소 폭도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인구도 전월 대비 19명 순증가했고, 중장년층 인구 감소 폭은 42명 완화됐다. 군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 파리서 K-컬처 연계 관광마케팅

K-컬처·트래블 페스티벌 참가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K-Culture & Travel Festival 2026'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경남도 파리사무소는 지난해 6월 개소한 '유럽 경상남도 파리사무소'로, 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유럽에 설치된 사무소다. 투자·통상·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경남과 유럽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참가한 행사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각국에서 순회 개최하는 방한 관광 홍보 행사로, 앞서 지난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열린 바 있다.

K-컬처 활용 방한 관광 관심도 제고



경남도가 'K-Culture & Travel Festival 2026'에 참가해 경남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와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경남도

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기업체 등 2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전시·홍보는 물론 K-Pop, K-댄스, 전통문화 공연, K-뷰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세계은행(World Bank)과 인도정부·유관기관 목포 방문.

/목포시

목포, 김산업 육성모델 글로벌 주목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35명 방문

세계은행(World Bank)과 인도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7일 목포를 찾아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현황과 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목포시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해조류 산업 확대 및 기술교류 협력사업」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

은행 관계자와 세계은행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인도 정부·유관기관 등 35명이 목포를 방문해 목포의 김산업 육성정책과 산업화 및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열린 주제발표에 참석해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조류연구센터와 한국김산업연합회로부터 국내 해조류 연구 및 김산업 현황과 발전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충남, 창업기업·투자자 교류 확대

15~16일 천안서 창업 페스티벌
IR·투자·오픈이노베이션 진행

충남도가 오는 15~16일 천안 유관순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남, NEXT STAGE'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다.

충남도는 중소기업부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의 사전등록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자, 대학, 지원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 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START HERE, GROW NEXT' & #8211; 시작은 누구나, 성장은 더 멀

리'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개막식과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세션, 기업설명회(IR)·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모두의 창업 챌린지, 전시·체험부스, 원스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비롯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창업지원기관, 청년 및 일반 참관객 등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재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인재·투자·창업 기반을 집적하는 창업도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지역 이모저모

경상국립대학교

항공방산 석·박사 120명 양성

경상국립대학교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항공방산 분야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 석·박사급 전문 인재 120명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한다. 2026년부터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총 172억원이 투입된다. 항공방산은 산업통상부가 올해 로봇과 함께 처음 지원 대상에 추가한 분야로, 비수도권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선정이 이뤄졌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개 첨단 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해 1200여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을 지원해왔다. /경남=이도식 기자

창원시

추석 연휴 파크골프장 개방

창원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가족과 시민들이 여유롭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조례'상 이 기간은 원래 전부 휴장일로 지정돼 있으나, 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인 만큼 파크골프 수요를 고려해 휴장일을 분산,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파크골프 인구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0년 4만 5000명이던 등록 동호인은 지난해 18만 4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최우수 11회 연속 수상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도 교육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11회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본청 기획예산관 하지우 주무관의 '데이터 속에 답이 있다! 학교 전기요금 속, 누수 예산 찾아!' 사례가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전기요금 집행 내역을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 적용돼야 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산청군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속도

산청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관한 '2026년 법인·개인사업자 전 기승합차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청군은 부산교통, 산청교통, 현대자동차, 펌프킨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청군 맞춤형 무공해 대중교통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한 바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펌프킨은 전기버스·전기택시 등 상용차용 대용량 급속 충전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충전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산청군은 국비 2억 3900만원, 군비 71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해외 ‘두부’ 국내 ‘실온제품’ 성과 풀무원, 창사 첫 ‘年 영업익 1000억’

1분기 매출 8503억, 영업익 190억
美 법인, 두부 시장 성장세 지속
中 법인, 고부가가치 제품 다변화
국내시장선 ‘실온 제품’ 매출 경종
미래 핵심 소비층에 1인 가구 낙점

풀무원이 해외 시장의 구조적 흑자 전환과 국내 실온 제품의 급성장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첫 ‘연간 영업이익 1000억원 시대’를 열어제낀다.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 물류비와 고정비 부담을 털어내고, 해외에서는 ‘현지화 B2B·고부가가치 포트폴리오’를, 국내에서는 ‘실온 제품 라인업 확대 및 1인 가구 중심의 식문화 접점 강화’를 양 대 축으로 삼아 본격적인 질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 ‘글로벌 K-푸드’ 해외 성과 본격화

풀무원의 글로벌 성장 엔진은 단연 미국과 중국 법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한 8503억원, 영업이익은 68.87% 급증한 19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식품제조유통부문 매출이 13.8% 늘어난 1898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영업손익도 손익분기점(BEP) 수준까지 도달하며 흑자 기조의 기틀을 다졌다.

미국법인은 11년 연속 현지 두부 시장 점유율 1위(약 67%)를 고수 중인 ‘나소야(Nasoya)’ 브랜드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두부 신규 매출처 확보와 아시아인 누들 B2B 공급 확대에 따라 1분기 매출이 18.0% 증가한 1362억원을 달성했으며, 공급망 안정화를 거쳐 분기 영업흑자 기조를 확고히 다졌다. 미국 성공을 기반으로 최근 유럽 법인을 설립하며 신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법인 역시 냉동김밥, 핫도그, 파스타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다변화하며 1분기 매출이 16.32% 증가한 32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샌드클립 입점 후 대박을 터뜨린 냉동김밥은 현지 생산 체계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베이징 1·2



풀무원 미국 제품.



풀무원 실온 제품.

/풀무원

공장의 이원화를 통한 생산 효율화로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 내수는 실온 제품과 1인 가구 공략

국내 시장에서는 기존 냉장·냉동 위주의 사업 구조를 넘어 ‘실온 제품’을 새로운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풀무원식품의 실온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5% 급증했으며, 전체 식품 매출 내 비중도 2024년 상반기 약 7%에서 올해 상반기 13%까지 대폭 확대됐다.

실온면 4종(볶음짜장·짬뽕, 우동, 칼국수)의 월 매출이 출시 초기 대비 600% 이상 성장하고, ‘아임리얼 100’ 및 ‘반듯한식’ 국탕류, 실온 한식 소스 등이 연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실온 카테고리 확장을 견인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등급 국산콩 두유·두부칩, 지구식단 슬림핏 쿵면 등 제품군을 가공식품 전반으로 더욱 넓혔다.

이와 함께 풀무원은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를 미래 핵심 소비층으로 낙점하고 식생활 전반으로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교육 공간인 ‘테이스티풀무원’에서 1인 가구 맞춤형 간편 조리법 및 지속가능식생활 교육 클래스를 진행한다. 이는 단순히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고기능성·지속가능성 기반의 브랜드 팬덤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 사상 첫 영업익 1000억 전망

미국 법인의 B2B 수주 온기 반영과 중국 법인의 현지화·수익성 고도화, 일본 법인의 강도 높은 비용 구조 최적화 및 국내 실온 사업 역량 집중이 맞물리면서 풀무원의 하반기 실적 전망은 매우 밝다.

증권가 및 업계에서는 올해 풀무원의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이 3조 5500억원, 영업이익은 114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000억원 시대’에 안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해외 핵심 축인 미국·중국 법인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더해 국내 신성장 동력인 실온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K-푸드 라인업 확장과 지속가능 식품 생태계 구축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풀무원푸드앤컬처, 김포공항 라운지 운영

국제선 ‘스카이허브라운지 프리미엄’
신규 수주로 공항 라운지 사업 확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김포공항 국제선에 프리미엄 공항 라운지를 선보이며 공항 라운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에 위치한 ‘스카이허브라운지 프리미엄’을 신규 수주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스카이허브라운지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운지는 휴식과 식사 중심의 ‘퍼블릭 존’과 업무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존’으로 구성했다. 비즈니스 존에는 1인 전용석과 프라이빗 다이닝룸(PDR)을 마련해 업무 목적의 이용객을 위한



풀무원푸드앤컬처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에 위치한 ‘스카이허브라운지 프리미엄’을 신규 수주하고 운영한다.

/풀무원푸드앤컬처

공간을 확보했다.

식음료(F&B) 콘텐츠도 차별화했다.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하는 해물라면과 함박스테이크,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반상 등을 제공하며, 퍼블릭 존에서는 풀무

원 지구식단의 두유면을 활용한 라이브 누들과 ‘노엣지 피자’ 등을 선보인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이번 신규수주를 계기로 공항 라운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등을 포함해 총 8개의 공항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간 구성과 F&B 서비스를 차별화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는 “이번 김포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 프리미엄 신규 수주를 통해 기존 공항 라운지 운영 역량을 한층 확장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공간 구성과 건강한 F&B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라운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무화과·낙지 등 가을 제철음식 맛보세요”

CJ푸드빌, 빙스·제일제면소서
가을 식재료 활용 신메뉴 선택

CJ푸드빌이 가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를 잇달아 선보이며 계절 마케팅에 나선다. 빙스는 생무화과를, 제일제면소는 낙지와 해산물, 버섯 등을 앞세워 가을철 외식 수요 공략에 나섰다.

빙스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생(生)무화과 스페셜’을 운영한다. 9월 수확기를 맞은 생무화과를 활용해 리코타 샐러드, 얼그레이 케이크, 판나코타 등 디저트와 샐러드 메뉴를 선보인다.

가을 신메뉴도 확대한다. ‘머쉬룸 크림

로스티드 치킨’, ‘골든 크런치 파쉬’, ‘케이준 버터 슈림프’를 비롯해 사과와 청귤을 활용한 샐러드와 곡물을 담은 ‘슈퍼그레인 샐러드’를 내놓는다. 한식 메뉴로는 꽃게 아욱 된장국, 낙지 초무침, 참나물 도토리묵 등을 추가하고 밤 크림과 치즈 케이크를 조합한 디저트도 선보인다.

제일제면소는 ‘풍요로운 계절의 맛, 가을 산해진미’를 콘셉트로 가을 메뉴를 출시한다. 대표 메뉴인 ‘낙지 한 마리 해물 칼국수’는 통낙지 한 마리에 가리비, 새우, 바지락을 더했으며, ‘얼큰 버섯 소고기 전골’에는 8가지 버섯과 소고기를 담

/신원선 기자

현대홈쇼핑 ‘머티리얼랩’, 매출 30% 급증

오늘 ‘아쇼라’서 F/W 신상품 선택

현대홈쇼핑이 자체 브랜드(PB)를 중심으로 패션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자체 프리미엄 컨템포러리 브랜드 ‘머티리얼랩’의 올해 1~8월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

2024년 론칭한 머티리얼랩은 미니멀한 디자인과 차분한 색상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의류와 조합하기 쉬운 디자인을 앞세워 현대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인 4050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9일 패션 프로그램 ‘서아라의 쇼퍼라이브(아쇼라)’ 3주년 기념 방송에서 머티리얼랩의 2026년 가을·겨울(F/W) 신상품을 선보인다.

오전 8시 15분부터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핸드그라피 레터링을 적용한 ‘세렌스 스웨트 후드집업’과 워싱 기법을 활용한 ‘컬



최근 현대홈쇼핑 패션 카테고리 매출 1위 프로그램 ‘서아라의 쇼퍼라이브’에서 진행한 패션 PB ‘머티리얼랩’ 방송 모습.

/현대홈쇼핑

포트 스트레이트핏 데님팬츠’ 등을 판매한다. 방송 중 채팅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와 구매 고객 대상 적립 혜택도 마련했다.

2023년 처음 선보인 아쇼라는 현대홈쇼핑의 패션 카테고리 대표 프로그램으로 신규 브랜드와 상품을 소개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아쇼라의 평균 시청자 수와 채팅 수는 자사 다른 패션 프로그램 평균보다 각각 8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seoh@

SSG닷컴 ‘바로퀵’, 일평균 주문 7배 늘어

출시 첫 달 比 이용 고객 5배 ↑

SSG닷컴은 지난 8월 쿠팡커머스 서비스인 바로퀵의 전체 일평균 주문 건수가 출시 초기 3개월인 지난해 9~11월 평균 대비 약 7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점포당 일평균 주문 건수도 약 2배로 늘었다.

이용 고객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주문 고객 수는 출시 첫 달인 지난해 9월보다 약 5배 늘었다. 이 가운데 51%는 이전 구

매 후 6개월 이내 다시 바로퀵을 이용한 재구매 고객이었다. 같은 달 3회 이상 주문한 고객은 전체 주문 고객의 약 10%를 차지했다.

서비스 운영 규모도 확대됐다. 취급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 당시 6000여종에서 현재 1만 8000여종으로 3배 늘었다. 신선·가공식품 중심이던 상품군에 즉석조리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추가했다. 배송 거점은 같은 기간 19곳에서 이달 중 9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롯데온, 시놀로지 제품 약 15% 할인판매

NAS·하드디스크 제품 등 선택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14일까지 글로벌 스토리지 전문 기업 시놀로지와 함께 할인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놀로지의 NAS(Net work Attached Storage)와 하드디스크(HDD) 등 데이터 저장·관리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최근 사진과 영상 등 개인이 보유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롯데온은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시놀로지와 공식 협업을 진행하고 데이터 저장·관리 환경 구축에 필요한 제품을 한데 모았다. 고객이 사용 목적과 데이터 규모에 따라 제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에서는 시놀로지 주요 제품을 온라인 판매가 대비 약 15% 할인해 판매한다. 주요 상품은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NAS 제품 ‘DS225+’와 ‘DS425+’ 등이다.

/김서현 기자

추석상도 ‘1인 시대’… 편의점 4사, 소용량 명절식 총출동

소용량·단품·간식 상품군 강화
CU, 명절 도시락 매출 3년 연속 ↑
세븐일레븐, 자체 냉장밥 기술 적용

편의점 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1인 가구를 겨냥한 명절 간편식 판매에 나섰다. 명절을 혼자 보내거나 간소하게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정찬 도시락뿐 아니라 전·잡채 등 단품 요리와 김밥, 주먹밥, 디저트까지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4사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활용한 간편식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대신 필요한 만큼 구매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 명절 연휴 기간 편의점 도시락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CU의 명절 연휴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2023년 18.5%,



명절 연휴에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명절 음식을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1~2인 가구와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른바 ‘혼명족’을 중심으로 간단히 명절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명절 신상품을 든 모델의 모습. /이마트24

2024년 20.8%, 2025년 12.2% 증가해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련 매출의 60% 이상은 원룸촌과 오피스텔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

SK바이오팜, 글로벌 R&D 전문가 영입

뉴로사이언스 본부장에 김태호 박사
CNS 연구 조직, CEO 직속으로 개편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개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문가 체계를 구축하며 전주기(End-to-end) R&D 강화에 나섰다. 신경과학, 항암 등 핵심 영역에 전문가를 배치함은 물론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를 중심으로 의학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노바티스에서 12년간 신경과학 R&D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도한 김태호 박사(사진)를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 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중추신경계(CNS) 연구 기능을 최고경영책임자(CEO) 직속 조직인 ‘뉴로사이언스 본부’로 개편하면서다.

항암 분야에서는 ‘방사성 의약품’과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우선 방사성 의약품 센터는 신용제 센터장이 내부 연구 역량을 올리고 있다. 신약후보물질, 자체 캘레이더 플랫폼 등으로 자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위원소 확보 등 공급망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표적 단백질 분해제 센터에서는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최고과학 책임자(CSO) 라이언 크루거 박사를 중심으로 차세대 항암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라이언 크루거 박사는 암 생물학 및 후성유전학 전문가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실제 의료 현장과 처방 경험을 반영해 신약개발 전략을 고도화한다.

소아신경과·뇌전증 전문의인 수니타미스와 최고 의학 책임자(CMO)를 필두로 주요 개발 및 의학 기능 전문인력의 약

20%가 의학박사로 구성됐다. 지난 7월에는 글로벌 비카마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애브비 등에서 18년 이상 경력을 쌓은 항암 임상 전문 김수영 의사과학자가 합류했다.

SK바이오팜은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글로벌 임상 및 상업화로 연결하는 ‘이스트-웨스트 브릿지’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글로벌 신약은 좋은 물질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초기부터 실제 환자에게 어떤 치료적 가치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 진료와 처방 경험을 갖춘 의학 박사와 연구 전문가가 긴밀하게 소통해 연구에서 임상개발, 나아가 상업화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R&D 체계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 AI로 백신 품질 관리

AI-GMP 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

GC녹십자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 대응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GC녹십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주관하는 ‘AI 활용 백신 제조변동성 제어 및 지능형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년 6개월간 추진되며, 국립목포대, 대구 가톨릭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화순바이오특화단지 및 GC녹십자 화순공장의 mRNA-LNP GMP 생산 인프라를 거점으로 스마트 제조-품질관리(AI-GMP)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리 기준(GMP) 기술을 융합한다는 방침이다. mRNA-LNP 백신의 원료의약품(DS)부터 완제의약품(DP)에 이르는 제조 전 공정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품질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연속 공정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배치 간 품질 차이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품질 예측 및 이상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품질 백신의 안정적인 양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기적인 팬데믹 위기 속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품질의 백신 공급망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mRNA-LNP 전주기 독자 기술과 전용 GMP 시설을 모두 갖춘 GC녹십자의 디지털 전환은 백신 주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청하 기자

피부온도 9℃ 낮춰주는 바세린 바디워시 출시

러닝과 웨이트 등 운동 후 밀려오는 피부 열감, 땀 냄새, 등드름 고민을 사워한번으로 씻어내는 올인원 바디워시가 등장했다.

애경산업의 패밀리티otal 바디케어 브랜드 바세린에서 ‘쿨링 앤 데오케어 바디워시’ (사진)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즉각적인 냉각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멘톨 성분을 함유해 사용 즉시 피부 온도를 사용 전 대비 9℃나 떨어뜨리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확보했다. 운동 직후 달아오른 피부 열감을 신속하게 식혀 사워 후 극강의 상쾌함을 전달한다. /이청하 기자



GS25는 도시락과 간편식, 김밥, 주먹밥 등 여러 상품군에 명절 메뉴를 적용했다. ‘이달의 도시락 한가위편’은 흑미밥과 전주비빔밥, 유채나물밥 등 세 종류의 밥에 잡채, 떡갈비, 모듬전과 송편 등을 담았다. 전과 잡채로 구성된 ‘추석 잡채&전’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불고기를 넣은 ‘추석 불고기추장비빔 김밥’과 곤드레나물밥에 고기를 더한 ‘추석 맥적구이 주먹밥’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CU는 도시락과 단품 요리, 디저트로 상품군을 구성했다. ‘풍성한가위 정찬 도시락’에는 간장불고기와 잡채, 모듬전, 나물 3종 등을 담았다. 전과 잡채로 구성된 단품 상품 ‘풍성한가위 잡채 모듬전’도 판매한다. 명절 간식인 송편도 소포장 상품으로 내놓는다. ‘참깨송편’은 1인 가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구성하고 포크를 함께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4월 개발한 냉장밥 수분 보존 및 노화 방지 기술인 ‘라이스 프로젝트’를 이번 명절 간편식에 적용했

다.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아도 밥의 수분과 식감을 유지하는 기술로, 명절 간편식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제품으로 남도식 떡갈비를 넣은 ‘복가득담은떡갈비김밥’과 산적 패티를 사용한 ‘복가득담은고기산적무스비’를 출시한다. 소불고기와 모듬전, 훈제오리구이 등 11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복가득담은한상 도시락’도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정찬 도시락 ‘한가위보름달만찬’을 출시한다. 흑미밥과 돼지불고기, 전 3종, 잡채, 삼색나물 등으로 구성했으며 후식으로 미니 찹쌀약과를 넣었다. 해당 상품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사전예약과 제휴 결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주요 편의점들이 명절 정찬 중심이던 간편식 구성을 단품 요리와 간식 등으로 확대하면서 1인 가구의 명절 식사 수요를 겨냥한 상품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日 KBIC와 스케일업 추진

한일 최초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셀트리온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고베 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KBIC)’와 손잡고 한일 최초의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8일 도쿄 LINK-J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2026 KBIC-셀트리온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과 셀트리온이 구축해 온 글로벌 상업화 노하우를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세대 핵심 파이프라인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셀트리온의 기술과 연계 가능한 항체, 펩타이드, 저분자화합물, 항노화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과의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모집해 오는 2027년 3월 2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2027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부터 허가·생산·상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셀트리온의 맞춤형 자문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고베 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는 운영기관인 고베의료산업도시 추진기구를 통해 투자 유치 전략을 고도화한다. 벤처캐피탈(VC) 등과 적극 소통해 유망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슈가논 10주년… 차세대 당뇨·비만 공략

동아에스티, 5개 도시서 학술 행사

동아에스티가 당뇨, 비만 등 차세대 내분비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국산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출시 1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7일 부산을 시작으로 10일 대구, 14일 광주, 17일 대전을 거쳐 오는 10월 19일 서울에서 막을 내린다.

동아에스티는 전국 의료진과 함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성분명: 에보글립틴)의 강력한 혈당 개선 효과와 장기 투여 안전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슈가논은 지난 20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26호 국산 신약이다. 기존 다른 DPP-4 억제제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던 환자에서 슈가논 전환 투여 시 나타난 당화혈색소 추가 감소 및 공복·식후 혈당 개선 효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대상 24주 이상 장기 투여 시 입증된

슈가논의 유의미한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다룬다.

이와 함께 동아에스티의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아울러 동아에스티는 슈가논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슈가논과 메트포르민 복합제 ‘슈가메트정’, 슈가논과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 ‘슈가다파정’, 슈가논·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슈가트리사방정’ 등을 선보여 왔다.

오는 12월 15일에는 슈가논과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 ‘슈가엠파정’이, 2027년 4월에는 슈가논·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 ‘슈가노바정’이 출시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 당뇨파트 박종국GPM은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슈가논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당뇨와 비만을 아우르는 혁신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건실한, 충실한, 확실한
우리의 결실, 숭실대학교

실(實)은
숭실이다

숭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

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수시모집 안내

- 원서접수: 2026. 9. 8.(화) ~ 11.(금)
- 합격자 발표: 2026. 12. 18.(금)
- 합격자 등록: 2026. 12. 21.(월) ~ 23.(수)
- 입학상담: admission.ssu.ac.kr, 02-820-0050~3



동화약품, 할명수 128주년 기념판 수익금 기부

우리나라 최초 의약품이자 최장수 브랜드인 할명수가 지구촌 생명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할명수 128주년 기념판' 판매 수익금을 대한적십자사 서울 지사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네덜란드 쿠와사바 지역의 수도·위생 시설 개선, 지역 주민 보건 교육 등에 쓰인다.

/동화약품



이호성 하나는행장,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

이호성 하나는행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나는행은 이 행장이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



iM금융, 대구·경북 청년 금융교육 지원

iM금융그룹이 대구·경북 지역 청년들의 금융역량 강화와 미래설계 지원9한다. iM금융그룹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7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 금융교육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iM금융그룹

HK이노엔

송근석 부사장, 과학기술 웅비장

HK이노엔의 혁신 신약 '케이캡'을 일궈낸 국내 제약·바이오 베테랑이 국가 최고 권위의 훈장을 받았다. HK이노엔은 지난 7일 열린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에서 송근석 부사장이 '과학기술 웅비장(3등급)'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기술개발인의 날은 민간 연구개발이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조명하는 국가 기념일이다. 과학기술 웅비장은 유공자 부문에서 가장 높은 훈장으로 송근석 부사장을 포함한 3명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송 부사장은 33년 연구개발과 국내 제약 기술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인사

◆**신한투자증권** △투자자산관리부 윤성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진 △글로벌경쟁전략 연구단 경제안보·통상연구실 김수동 △경제전망·통계 연구단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박문수 △글로벌경쟁전략 연구단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임소영 ◇연구위원 송진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경제안보·통상연구실 통상 정책분석팀 김현석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경제안보·통상연구실 박병열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이소라 △한아세안정책협력센터 자카르타 연락사무소 이용호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성장 연구실 정운선

부음

▲윤경자씨 별세, 신권식(전 삼성물산 부사장)씨 모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학교' 프랑스서 유럽 첫발

프랑스한국교육원과 교육 협력 약정
전동화·수소·자율주행 체형 교육
한국어 교보재 활용 연계 수업 검토

현대자동차가 미래세대 모빌리티 교육 프로그램 '미래 모빌리티 학교'를 프랑스에 도입하며 유럽으로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

현대차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서 프랑스한국교육원과 '프랑스 미래 모빌리티 학교(FMS)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학교는 청소년들이 전동화와 수소,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 변화를 체험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미래 모빌리티 학교' 유럽 최초 도입 추진. /현대자동차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2700여 개 학교에서 약 11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현대차는 2016년부터 국내 초·중·

고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로 확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車업계, 추석 귀향길 앞두고 무상점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21~23일
한국타이어, 공기압·마모 상태 확인

추석 연휴와 가을 장거리 운행 수요를 앞두고 자동차·타이어 업체들이 차량 안전점검과 정비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제네시스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추석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등 오일류를 비롯해 냉각수, 배터리, 타이어 마모도·공기압, 공조장치, 등화장치, 브레이크 패드, 워셔액 등이다. 추석 연휴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주요 부품과 기능을 확인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1203개 블루핸즈, 기아 고객은 750개 오토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영 하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타이어보이 사진. /한국타이어

이테크센터와 직영 서비스센터는 제외된다. 무상점검 쿠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사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착순 발급한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도 추석 귀향길을 앞두고 타이어 안전점검에 나선다. 오는 9일 대전시청 주차장에서 대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함께 안전점검 캠페인 '타이어보이'를 진행한다.

/이승혁 기자

지그재그, 주문 몰리는 시간 '월요일 밤 11시'

여름 소비 데이터 분석 발표

카카오스타일이 8일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올해 여름 고객 소비 행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고객 검색 키워드와 상품 구매 데이터를 요일, 시간, 키워드 등 주요 항목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올해 여름 지그재그에서 주문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월

요일 밤 11시로 나타났다. 거래액 역시 같은 시간대가 가장 높았다. 일요일 밤 11시가 뒤를 이었다.

요일별 누적 주문 건수와 거래액은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순으로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주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밤 11시에 가장 많았다.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동안 발생한 주문 건수와 거래액은 하루 전체의 약 33%를 차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미래에셋생명, 장애인 직업재활 봉사

임직원들 대봉투 제작·펜 포장 참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등 지원

미래에셋생명은 서울 우리마포보호작업장에서 마포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을 돕는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자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내 보호작업장에서 일손을 거들며 대봉투 만들기, 펜 포장 등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미래에셋생명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에 동참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빽다방 대만 간다… 5년 내 150개점 목표

현지 파트너와 10년 MF 계약 체결

더본코리아의 커피 브랜드 빽다방이 대만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마스터프랜차이즈(MF)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더본코리아는 8일 대만 현지 파트너사와 빽다방의 대만 사업을 위한 10년 MF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1년 차 10개점 출점을 시작으로 5년 차

유럽 지역 도입을 추진한다.

프랑스에서는 현지 교육 환경과 학생 수요를 반영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어 교보재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교육과 한국어 학습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미래 모빌리티 학교의 유럽 최초 도입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미래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Sh수협은행, 빵 430개 구워 취약계층 전달

임직원 10명 희망나눔 베이커리
생필품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

Sh수협은행은 대한적십자사서울지점 양천봉사나눔터에서 '열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열린 희망나눔 베이커리는 결실 우려가 있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구운 베이커리를 전달하는 사내 봉사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배경남 서울마포금융본부장을 비롯해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빵 430개를 만들었다. 빵은 수협은행이 준비한 생필품과 함께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된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나눔 베이커리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작년과달



Sh수협은행 임직원이 8일 대한적십자사서울지점 양천봉사나눔터에서 '열린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h수협은행

리 전국 19개 금융본부 단위로 참여인원 규모를 확대했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금융본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대를 쌓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눈에 띄는 그녀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LG헬로비전, 여성직업인 109명 조명

LG헬로비전은 대표 장수 프로그램 '눈에 띄는 그녀들'이 '2026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서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눈에 띄는 그녀들'은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의 한계를 뛰어 넘어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들의 생생한 일상을 조명해 온 자사의 대표 휴먼 다큐멘터리다.

2022년 첫 방송 이후 5년 간 방송을 이어왔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철 기관사, 선박 용접사, 택배기사 등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분야로 여겨졌던 직군에서 당당하게 뽐내는 여성 직업인 109명을 발굴했다.

이번 시상에서 여성 직업인들의 도전과 삶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며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힌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조민선 기자 msjo@

매콤달콤의 최적 밸런스

리아 불고기 세트

더블 불고기 패티로 든든하게

리아 불고기 더블 레드

NEW

NEW

감자채전 토핑으로 바삭하게

리아 불고기 레드

LOTTERIA™

스크린의 귀환, 히말라야의 기다림



김 희 석

칼럼

돌아오는 것이 여행의 완성이다.

한산했던 극장가가 모처럼 관객들로 북적였다. 올여름 극장가를 가장 뜨겁게 달군 영화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를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개봉 한 달 만에 국내 관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 2800년 전 이야기가 인공지능과 우주시대의 관객까지 사로잡은 셈이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졌지만 귀향에도 다시 10년이 걸렸다. 바다의 분노와 괴물의 위협, 유혹과 배신을 견뎌낸 끝에 그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온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긴 이야기가 귀환에 할애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원정의 목적은 멀리 떠나는 데 있지 않다. 무사히 돌아와 기다리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때 비로소 여정은 완성된다. 오디세우스에게 바다는 모험의 무대였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부하에게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같은 항해도

귀환한 사람에게는 모험담이 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극이 된다.

비슷한 시기, 히말라야에서는 영화보다 참혹한 현실의 재난이 벌어졌다.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고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물과 토사가 계곡을 덮쳤다. 마을과 도로, 교량이 사라졌고 여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피해를 입었다. 네팔은 지금도 수많은 실종자를 찾고 있다.

재난의 정확한 발생 과정은 조사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빠르게 따뜻해지는 히말라야의 기후에 주목한다.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약해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산비탈과 암반의 안정성도 낮아진다. 네팔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몫이 미미하지만 기후재난의 피해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기후위기의 불공정성이 히말라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기후변화에에만 돌릴 수도 없다. 전력과 도로, 일자리가 필요한 नेपाल 수력발전은 중요한 성장 기반이다. 문제는 개발 여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개발하느냐에 있다. 기후변화로 과거의 안전기준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위험지도와 설계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과

정에서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이번 재난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도 끊겼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인력들이다. 정부가 신속대응팀과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고 네팔 당국 및 여러 나라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이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고난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의 방랑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가 기억하는 모험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누구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에게는 영웅의 귀환으로 기록된 항해가 다른 누군가와 그 가족에게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으로 남았다. 우리가 ‘오디세이’의 화려한 모험 뒤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지금 히말라야에서도 실종자들의 가족과 동료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취나 모험담이 아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익숙한 얼굴과 “다녀왔습니다”라는 평범한 한마디다.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도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가족과 동료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유튜버상 vbkim11@metroseoul.co.kr

‘영끌’의 책임은 오롯이 차주 몫인가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말 1조원이던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올해 6월 말 2조2000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20.9%에 그쳤다. 대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연체가 훨씬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이 같은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영끌족’이다.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이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낸 선택에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금리와 집값이 언제까지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

킨 판단 역시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오롯이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주요 수익원으로 적극 취급했다. 상대적으로 담보가 확실한 주택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이었다. 대출 수요가 커지는 동안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도 함께 불어났다.

정책당국 역시 가계부채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다. 주택시장 불안과 대출 규제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에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이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차주가 빚을 내 주택시장에 진입했다.

당시에는 대출이 손쉽게 공급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차주와 금융회사 모두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상환 부담이 커지자 책임의 초점은 빠르게 개인에게 옮겨갔다.

최근에는 장기 연체와 고정이하여신도 함께 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차주의 일시적인 상환 지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차주의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 위축,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영끌족의 실패’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아니라 왜 이런 부채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공급했던 주체로서 취약 차주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고, 정책당국 역시 가계부채가 다시 특정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영끌의 대가는 지금 차주가 치르고 있다. 그러나 영끌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까지 차주 혼자 만든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책임을 논하려면 차주의 선택뿐 아니라 금융권과 정책당국의 역할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yu115@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9일 (음 7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경쟁 자가 너무 많습니다. 60년생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세요. 72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84년생 얼마 전 다툰 사람이 용기내어 사과를 요청합니다. 용서하세요.



소

49년생 높은 집에 옷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61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73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85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방향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62년생 재물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74년생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86년생 조금은 어려우나 좌절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토끼

51년생 뜻밖의 여인이 도움을 줍니다. 63년생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75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87년생 기회는 많으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염

52년생 예상을 빚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64년생 새롭게 시작함이 좋습니다. 76년생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邁進하세요. 88년생 희망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뱀

53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5년생 아랫사람을 챙기세요. 77년생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89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말

54년생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합니다. 66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78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0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호랑이

55년생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6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7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91년생 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원숭이

56년생 무엇보다 건강을 다스릴 때입니다. 6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게 탈입니다. 80년생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9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닭

57년생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입니다. 69년생 회사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81년생 어둠을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픈 하루입니다. 93년생 근신할 때입니다. 매사 주의 하세요.



돼지

58년생 세상은 혼자 살아 갈 수 없습니다. 70년생 업무를 할 때에는 주위와 협동하세요. 82년생 무작정 발인다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94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어렵겠습니다.



돼지

59년생 주의 사람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71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83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95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최선의 선택

아문센과 스콧의 남극 탐험 이야기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아문센과 스콧의 남극 탐험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생의 험난한 여정이 미지의 남극 탐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에 더욱 그렇다. 관심을 두고 살펴보니 아문센과 스콧은 결국 최선 또는 최적의 선택에 관한 판단이 달랐다. 우선 남극이라는 혹독한 기후 여건과 빙산을 비롯한 빙하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지식 등에 차이가 있었고, 혹여 발생한 여러 종류의 리스크에 대한 가정과 준비에 있어 대응방안이 달랐다. 즉,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처 방안이 차이가 달랐던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과를 낳았다. 우선, 아문센은 이동수단으로서 개 썰매를 활용하기로 했기에 개들은 철저히 훈련받았고 개 썰매를 모는 요령도 철저히 훈련하였다.

아문센은 탐험에 앞서 이누이트족에게서 개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개를 잘 다루는 아들, 즉 기술자들을 최종 팀원으로 넣을 만큼 개 썰매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콧은 개 썰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누이트족이었기 때문에 아문센들의 문화라고 생각하여 멸시했다. 그래서 스콧은 대영제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설상차와 야쿠트 조랑말에 기대를 걸었다. 이는 스콧의 치명적인 실책 중 하나가 됐다. 조랑말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했고, 설상차는 당대의 과학적인 기술이었다곤 해도 남극의 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이었다. 굳이 미지 탐험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다. 인생 여정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인생이 뭔가 장애가 계속되고 뜻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 잠깐 멈춤을 해야 한다. 그 해안의 힘은 겸손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1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2		9		6	
							9
	9					3	
						1	9
	7		2		6		4
	4	6					
		8					5
4							
	5			1		4	8
							2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9		7	8
5		7		4				
					8		5	
1		3						
	5							4
						8		1
	9		2					
				7		2		9
2	7		6					5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8	7	6	1	2	8	9	9
2	8	9	8	2	9	6	1	7
1	9	6	7	9	8	8	2	2
9	2	2	1	8	6	9	7	8
8	7	8	9	9	2	1	2	6
9	6	1	2	8	7	9	8	2
8	1	8	7	9	2	6	9	9
6	2	9	8	2	8	7	9	1
7	9	2	9	6	1	2	8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7	8	6	9	1	2	2
6	1	2	9	2	8	7	9	8
8	9	2	7	1	2	9	6	8
1	8	8	9	9	1	6	2	2
2	7	6	2	8	1	8	9	9
9	2	9	2	8	6	8	7	1
7	9	1	8	9	2	2	8	6
2	6	9	1	7	8	2	8	9
8	2	8	6	2	9	9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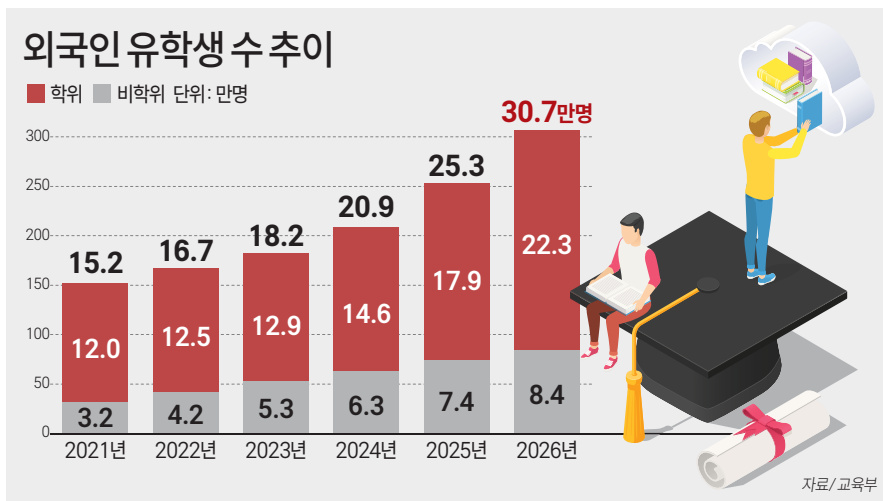
부실대학,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교육·관리 기준 강화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미인증·경영위기대학 제재 강화
유학생 30만명시대… 양보다 질로
첨단산업 등 우수 유학생 지원 확대

앞으로 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이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평가도 강화돼 한국어 등 공인언어능력 기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학업·생활 지원도 운영 실적이 아닌 내용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부실대학 유학생 모집 제한

지난해 8월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464명으로, 정부가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세웠던 2027년 30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유학생 수는 2023년 18만2000명에서 2024년 20만 9000명, 지난해 25만3000명에 이어 올해



30만7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대학의 교육·관리 역량과 유학생의 취업·정착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선정

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인 5단계 '비자심사정밀대학'으로 분류한다. 대학의 교육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제한해 사실상 신규 모집을 막는 방식이다.

유학생 모집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위과정 운영 대학 340곳 가운데 유학원을 활용한 대학은 149곳으로 43.6%에 달했다. 유학생 8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7.8%가 유학소개업체의 추천을 대학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일부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나 허위 학위 제출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과 유학원 간 '유학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배포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입학이 취소되면 대학이 유학생 명의 계좌로 등록금을 직접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표준협약서에 담긴다. 해외 학위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이공계·우수 유학생은 지원 확대

첨단산업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초청 장학생(GKS) 석·박사 과정의 이공계 재학생 비중을 지난해 40.9%에서 올해 43%, 2027년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이공계 석사 장학생은 박사과정까지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성과 우수자에게는 성과

격려금도 지급한다.

2027년에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신설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실적을 낸 학과를 연간 10개 이내로 선정한다. 인증학과에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산학협력,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인증학과는 2년마다 갱신 여부를 점검해 전체 30개 이내로 관리한다.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2027년부터 국내 채용 절차와 직종별 정보, 직장문화 등을 담은 취업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관심 지역·직군·채용 형태에 따라 신규 채용공고를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도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교육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초광역 인재육성’ 6곳 선정… 4년간 600억

(모델당 최다)

교육부, 지역맞춤 인재 1.4만명 육성
지방정부-대학-기업 협업모델 선정

교육부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모델 6곳을 공개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4년간 모델당 최대 600억 원을 투입해 1만 4000명의 지역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의 '초광역 성장 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와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정책이다. 기존 시도 단위였던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경제권역 단위 체계로 넓혔다.

교육부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모델로 ▲경남대(경남) ▲고려대 세종캠퍼스(세종) ▲국립금오공대(경북) ▲국립목포대(전남광주) ▲단국대(충남) ▲우석대(전북) 등 6곳을 선정했다. 각 지방정부가 제안한 19개의 지방정부-대학-기업 협업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 반영 여부 ▲정부 여건 마련을 통한 인재양성 체계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간 공조의 명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매가존(경남·인천·강원), 유한양행(충남·경기·대구), SK하이닉스(세종·충북) 등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개 모델에 산업별 교육·연

구·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1만 4000명 규모의 지역 맞춤형 첨단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주관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남대는 '제조 인공지능전환(AX) 및 인공지능(AI) 로봇' 분야에서 4년간 26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국립금오공대는 '반도체첨단소재부품 및 인공지능(AI) 제조로봇' 분야 3000명, 국립목포대는 '재생에너지' 분야 1500명을 키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반도체' 분야 인재 2800명을 길러낸다. 우석대는 '수소 및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단국대는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각각 2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모델별 매년 최대 15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4년 동안 받는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경기도 “비움 여행지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경기관공공사, 가을 여행지 6곳 추천
역사, 자연체험 등 이색 여행지 눈길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멀리 떠나지 않고도 일상의 속도를 늦추며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여행지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와 경기관공사는 한옥과 숲, 수목원, 생태공원, 역사·문화공간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비움 여행지' 6곳을 소개했다.

수원화성 성곽 안쪽 남수동 골목길에는 검은 기와와 단정한 담장이 이어지는 한옥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8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남수현(南水軒)'은 전통

한옥의 분위기에 현대적인 편의를 더한 한옥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수원화성 성곽길을 걸은 뒤 차와 책, 전시를 함께 즐기며 쉬어가기에도 적합하다.

포천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중심부에 자리한다. 1468년 조선 세조의 능림으로 지정된 이후 보호돼 온 숲으로, 5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온대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천연림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가평 잣향기푸른숲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 해발 450~600m에 자리한 산림치유 공간이다.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포천 국립수목원.

/경기관공공사

국내 최대 규모로 분포해 숲길을 따라 걸으며 울창한 잣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성 마항리평화기념관, 부천 자연생태공원,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등 숙박과 산책, 자연 체험부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공간까지 여행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수능 지원자 55만1864명… ‘N수생’ 32%

재학생 줄고, 졸업생·검정고시 늘어
사탐 선택 69.9%… 쏠림현상 심화

재학생 수가 줄어든 가운데 졸업생의 수능 도전은 크게 늘면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N수생' 비중이 한층 높아졌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 쏠림이 커지고,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러'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원자는 55만1864명으로 전년도 55만4174명보다 2310명(0.4%) 감소했다.

재학생은 35만5391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6506명(4.4%) 줄었다. 전체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67.1%에서 올해 64.4%로 2.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지난해

15만9922명보다 1만3784명(8.6%) 증가했다.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8.9%에서 31.5%로 2.6%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도 2만2767명으로 412명(1.8%) 증가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지원자를 합치면 19만6473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35.6%에 달한다.

선택과목에서는 수학 영역의 미적분·기하 선택자가 전체 수학 지원자의 35.1%를 차지했다. 수학 영역 지원자 51만8939명 가운데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33만6539명(64.9%)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52만 7255명 가운데 사회탐구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36만7073명으로 69.6%를 차지했다.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7만 5036명(14.2%)에 그쳤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각각 한 과목씩 선택한 수험생은 8만5146명(16.1%)이었다. /이현진 기자



▲홍콩 초·중·고교 9월 개학 직후 3명 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사진 뉴시스
▲화웨이, 中 반도체 '자립' 이끈다…노광장비·핵심부품 국산화 속도

▲트럼프, 이틀간 SNS 80여건 '폭주'…심·정치 공세·자화자찬 쏟아
▲네팔 '빙하 홍수' 발생 15일째…韓 긴급구호대 도보 수색 나선다

▲캐나다, 대미 맞불관세 발효…美제품에 최고 50% 보복 관세
▲이란, 美 압박에 군사적 긴장 고조…“전면전 아닌 단계적 확전 가능성”



해외 '두부'
국내 '실온제품'
폴무원 성장세
L1

metro®

Life

편의점
추석상도
'인 시대'
L2



글로벌 빅파마 '신약창고' 된 중국... 글로벌 임상 시범대

중국 첨단산업지도

⑨바이오

화이자지는 지난해 5월 중국 삼생제약의 항암 이중항체 후보물질 'SSGJ-707'에 대한 중국 외 글로벌 독점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선금금 12억5000만달러(약 1조7267억 5000만원), 개발·허가·상업화 마일스톤 최대 48억달러(약 6조6292억원)에 1억달러(약 1381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다. 계약은 두 달 뒤인 7월 완료됐으며 중국 내 권리는 화이자가 별도 옵션으로 남겨뒀다.

선금금 12억5000만달러는 중국 신약기술수출 역사에서도 기록적인 규모다. SSGJ-707은 PD-1과 VEGF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항체로, 계약 당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후보물질이었다. 그런데도 화이자지는 임상 실패 시 반환받을 수 없는 거액을 먼저 지급했다.

이 같은 거래는 글로벌 제약산업 전반에서 잇따르고 있다.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가 주도하던 글로벌 신약 조달 시장에 상하이와 쑤저우가 주요 공급처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 제약 데이터업체 팜큐브(PharmCube)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공표 최대 계약가액은 1356억5500만달러(약 187조3259억원)로 전년(519억달러)의 2.6배에 달했다. 계약 건수도 94건에서 157건으로 늘었다. 계약상 공표된 선금금 합계는 약 70억달러(약 9조6691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팜큐브는 지난해 중국발 거래가 글로벌 제약 라이선스 딜 가치(공표 최대가액 기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 특허절벽에 몰린 빅파마, 중국으로

빅파마가 중국 신약 후보물질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특허절벽이 있다. 제약 분석기관 이밸류에이트(Evaluate)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독점권을 잃는 처방약의 매출 규모는 3000억달러(약 414조4500억원)를 넘는다. 기존 주력 제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공백을 메우려면 외부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보다 신약 초기 개발과 임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고 후보물질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정부가 혁신신약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후보물질의 개발 속도도 빨라졌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해 10월 요건을 갖춘 1류 혁신신약 등에 30영업일 심사를 적용하는 신속심사 통로를 마련했다. 복잡한 기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60일로 연장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심사 속도 격차를 줄이는 조치다. 지난해 NMPA가 승인한 혁신신약은 76개로 전년(48개)보다 58.3% 증가했다.

다만 중국 바이오산업 전체가 고르게 성장한 것은 아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공표 최대 계약가액의 약 60%를 차지했다. 형루이제약의 지난해 합산 계약 규모는 약 167억달러(약 23조810억원), 쑤저우 진권탐은 미국 바이오헤이븐과 한국 에임드바이오 계약을 포함해

중 기술수출 공표 계약액 1356억 달러
계약 157건·선금금 70억달러 사상최대

빅파마, 특허절벽에 새 파이프라인 절실
중 상하이·쑤저우, 주요 공급처로 부상
임상 전 중국 후보물질 확보 경쟁 치열
상위 10개 기업에 계약액 60% 몰려

임상·허가 등 조건부 마일스톤 상당수
계약 규모와 실제 지급액 큰 차이 있어
미국 견제에 해외진출 제약도 '변수'
임상조건 충족 등 마일스톤 현금화 관건

약 130억달러(약 17조9673억원)로 집계됐다. 소수의 선도기업이 중국 바이오 기술수출 확대를 이끈 구조다.

◆ 125억달러 계약, 선금금은 5억달러

그러나 공표된 계약 규모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공표 최대 계약가액에는 임상과 허가, 판매 목표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마일스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GSK가 지난해 7월 형루이제약과 맺은 계약의 최대 규모는 125억달러(약 17조2737억원)지만 선금금은 5억달러(약 6913억원)다. 나머지 120억달러는 직접 라이선스한 후보물질 1개를 제외한 11개 옵션 프로그램이 모두 선택되고 성과 조건까지 충족해야 지급된다. 모든 옵션이 행사되고 마일스톤이 전부 달성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올해 1월 아스트라제네카가 CSPC제약과 체결한 비만·당뇨 신약 계약도 공표 금액과 실제 계약 구조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개한 금액은 선금금 12억달러(약 1조6594억원)와 개발·허가·마일스톤 최대 35억달러(약 4조8402억원)를 합한 47억달러(약 6조4996억원)다.

반면 CSPC가 홍콩거래소에 공시한 조건에는 판매 마일스톤 138억달러(약 19조840억원)가 추가돼 전체 계약 규모가 최대 185억달러(약 25조 5836억원)로 표기됐다. 같은 계약이 사는 쪽의

발표에서는 47억달러, 파는 쪽의 공시에서는 185억달러로 나타난 셈이다.

중국산 신약 자산이 다른 국가의 기업을 거쳐 빅파마로 이전되는 사례도 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브리스틀마이어스스콧(BMS)와 맺은 BNT327 계약은 선금금 15억달러(약 2조741억원)를 포함해 최대 111억달러(약 15조3480억원) 규모지만 해당 후보물질은 중국 바이오테우스가 개발했다.

바이오엔테크는 2023년 BNT327의 중국 외 권리를 도입한 뒤 바이오테우스를 인수해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다. 중국에서 발굴된 후보물질이 독일 기업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편입된 뒤 미국 빅파마와의 공동개발·상업화 단계로 넘어간 구조다.

거래 대상과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이스코는 저분자 신약 2종의 권리를 미국 누벡티스에 넘기고 향후 마일스톤으로 최대 14억2100만달러(약 1조9648억원)를 받기로 했다. 안테진은 고품암을 겨냥한 T세포 인계이저 'ATG-106'의 중화권 외 글로벌 권리를 미국 K2테라퓨틱스에 이전했다.

개발 후보물질뿐 아니라 신약발굴 플랫폼과 연구 역량도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실리코 메디슨은 SK바이오팜과 인공지능(AI) 신약발굴 플랫폼 Pharma.AI를 활용해 중추신경계 신경면역 후보물질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신다바이오는 다케다와 최대 114억달러(약 15조7582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핵심 후보물질 IB1363의 글로벌 공동개발과 미국 공동판매에 참여한다.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신다바이오와 다케다가 40대 60으로 나누기로 했다. 후보물질의 권리를 넘기고 로열티만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과 판매에 직접 참여하려는 시도다.

◆ 마일스톤 현금화가 성공 여부 가른다

대형 계약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표된 계약 총액을 그대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임상 진입과 허가, 판매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마일스톤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 임상 결과만으로는 국가별 환자 구성과

표준치료, 임상 설계, 규제 기준의 차이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다수가 임상을 다시 설계하고 수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후보물질을 도입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도 중국산 후보물질의 해외 진출을 제약할 수 있는 변수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세출법안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등 우려했던 임상이자료를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에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법안 본문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임상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별도로 '오퍼레이션 트라이얼블레이저(Operation TrialBlazer)'를 발표하고 해외로 이전된 초기 임상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심사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비용과 개발 속도를 앞세운 임상 경쟁력에 대응해 자국 내 초기 임상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임상과 규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일부 후보물질은 후속 개발이 진전되면서 조건부 마일스톤을 실제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이오코의 미국 자회사 시스트이문은 EGFR과 HER3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항체 ADC의 글로벌 임상 2·3상에서 첫 환자 투약이라는 조건을 충족해 BMS로부터 2억5000만달러(약 3457억원)를 받았다. 팜큐브는 이를 공개된 중국 혁신신약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단일 ADC 자산 기준 최대 마일스톤 지급액으로 집계했다. 2023년 12월 선금금 8억달러(약 1조1062억원)로 시작한 계약이 약 2년 만에 추가 현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유럽 직접 판매 경험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형 계약 대부분에서도 서구 시장의 개발과 판매는 빅파마가 주도하고 있다. 향후 2~3년간 임상과 허가가 진전되면서 공표된 마일스톤이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가 중국 바이오 기술수출 확대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유튜브 채널, 축구계 인신공격 자체 축구”
▲이정후, 2경기 연속 안타로 반등 신호탄... 팀은 연장 11회 끝내기 승리 /사진 뉴시스

▲대한체육회, 95일 만에 핸드볼경기장 진입... “AG 선수단 운영에 최선 다할 것”
▲‘12K 역투’ 하현승, 대만전 선발 중책 완수... “대표팀 경기 중 제일 안 떨었다”

▲‘2026 젊은 건축가상’에 나종원·김민호·신성진·손경민
▲첼리스트 박상혁,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3위